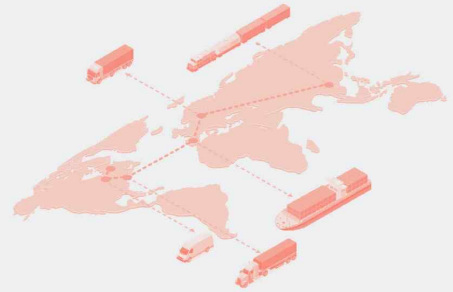




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현황 및 대안정책 분석

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현황 및 대안정책 분석



목 차

요약	1
제1장 우크라이나 사태와 對러 제재의 경과	3
제1절 對러 제재의 양상	3
제2절 제재의 영향 및 경과	10
제2장 러시아의 대외 경제협력 현황	18
제1절 국별 교역현황	18
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	24
제3절 혁신·기술·금융 부문	32
제3장 러시아의 對제재 대응 방향	41
제1절 대내: 수입대체화 정책과 공급 내재화	41
제2절 대외: 협력국 집중화와 대안 모색	51
제4장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	64
참고문헌	

요 약

□ 對러 제재의 경과

-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사태 초기 금융, 에너지, 통상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이후 보완적인 형태로 발전
 - * 초기 제재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루트를 차단하여 러시아 내의 상품부족 및 대외 고립현상 가속화 목적
 - ** 이후 초기제재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제재 및 군사제재 강화
- 경제제재로 인한 부작용이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,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여론은 지지되는 상황
 - * 대러 제재의 부작용으로 △글로벌에너지가격 상승, △곡물가격 폭등, △경제블록화 촉진 등이 나타나고 있음.
 - ** 제재의 강도와 지속에 대해서 서방 내에서 이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는 아직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 높음.

□ 러시아의 대외 경제협력 현황

- (교역) 제재로 인해 EU, 미국 등 비우호국과의 교역 감소 및 중국, 튀르키예 등 우호국과의 교역 확대 추세
 - * 對EU 수입은 월간 약 80억 달러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수출도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 추세
 - ** 중국, 인도 등 우호국이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였으며 튀르키예 등 으로부터의 상품 수입도 증가
- (투자) 서구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중단되고 있으나 중국 등 우호국 기업은 대체로 정상적인 기업활동 영위
 - * 서구기업들은 사태 이전까지 에너지, 제조업 분야에 활발히 투자했으나 사태 이후 투자 전면 중단 및 철수기업 다수
 - ** 우호국의 경우 일부 기업들은 프로젝트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대체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
- (혁신·기술·금융) 우호국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와 루블화, 위안화 사용 확대 등 서방과 거리두기 지속

요 약

- * 독일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기술협력관계를 이어왔으나 사태 이후 관계 중단 및 중국, 인도 중심의 협력관계 강화
- ** 러시아는 BRICS 내에서 달러화 사용 비중을 줄이고 루블화 사용을 확대해왔으며 중국과의 위안화 거래도 증가

□ 러시아의 對제재 대응 방향

- (수입대체화) 2022년 3월부터 산업발전을 위해 각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추진
 - *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을 위해 각 산업별 ‘산업역량센터’를 설립하고 동 센터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체가 필요한 외국 소프트웨어의 우선순위 영역, 유형 등을 결정
 - ** 반도체와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자국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산업기반이 약해 추진에 난관
- (협력국 집중화) 우호국에 대한 에너지, 금융 분야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극항로 등 물류분야도 협력 강화
 - * 중국과는 ‘시베리아의 힘 2’ 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 협력 지속 및 인도 및 이란과도 에너지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
 - ** EAEU나 BRICS의 틀 안에서 공동 화폐창설 및 군사협력 확대
 - *** 물류제재에 따라,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‘남북국제운송회랑 (INSTC)’과 북극항로의 활성화 추진

□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

-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대체화정책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유가 등 대외환경도 중요
 - * 이란의 경우, 러시아에 앞서 오랜 기간동안 서방으로부터 금융, 교역, 에너지 분야에서 유사한 제재를 받았으며 부정적인 여파 지속
 - ** 국제에너지가격, 글로벌경제 등 거시적인 환경요인과 신산업발전, 수입대체화 등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가 가장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음.
 - *** 향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신산업발전 및 수입대체화의 성공여부

I

우크라이나 사태와 對러 제재의 경과

1

對러 제재의 양상

□ 사태 초기의 對러 경제제재와 합의

○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다양한 경제제재를 도입했음.

-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무력 공격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

* 同 경제제재의 성격은 러시아에 대한 징벌적 색채가 강하며 그 배경에는 서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, 시장경제, 인권, 자유 등의 가치가 기반

-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공유하면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제재 시행

-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한국, 일본, 호주 등 주로 미국의 우방국 및 선진국이며 중국, 중동, 중남미, CIS 등 신흥국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가 제재에 동조하지 않는 태도 견지

*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은 미국 등의 일방적인 제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재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 유지

○ 사태 발생 초기 약 3개월간 금융, 에너지, 수출통제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집중됨.

- (금융제재)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국제통화결제망(SWIFT)배제, 금융기관의 서방국가 내 자금조달 금지 및 자산동결 등

* SWIFT 배제 은행은 VTB, VEB, Sovcom, Novicom, Bank Rossiya, Otkritie,

PSB(Promsvyazbank), Sberbank, Rosselkhoz, CBM 등

- (에너지 제재) 對러 에너지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석탄·원유·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EU는 단계적 수입금지 시행
 - * 미국의 對러 에너지 의존도는 석유제품을 포함하여 약 8%에 그치지만, EU의 경우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약 40%를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등 對러 의존도 큼.
 - (수출통제) 미국은 해외직접생산제품규정(FDPR) 및 수출거부정책(policy of denial) 적용, 거래통제목록(CCL) 및 우려거래자 목록 확대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원천 차단
 - (기타 제재)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자국 내의 러시아 항공,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와의 물류망 차단 등
-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루트를 차단하여 러시아 내의 상품부족 및 대외 고립현상 가속화 목적
- 징벌적인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

[그림 1] 서방 국가의 對러시아 교역 분야 통제

공적 통제 영역			
목적	상품공급 과정 차단	상품공급연계 결제 차단	상품공급 루트 차단
방식	수출통제	금융통제	물류통제
세부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거래통제목록 확대 ▪ 군사목적 수출금지 ▪ 수출면제사유 축소 ▪ FDPR 확대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제금융결제망(SWIFT)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러시아 선박·항공기 자국입항 금지 ▪ 철도운송 금지

* 자료: 저자 작성

- FDPR 및 수출거부정책 적용, 거래통제 목록상품의 확대 등의 수출통제

방식은 러시아에 대한 상품공급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

- 러시아 주요 은행의 SWIFT망 배제는 상품교역과 연계된 결제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것으로 교역에 있어 지불수단에 직접적인 영향
 - 러시아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입항과 육로로 연계되는 철도운송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물리적인 상품 수출 루트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교역을 규제
 - 공적인 부문에서의 제재와 함께 많은 서구의 민간기업들이 러시아에 서의 자발적인 철수와 상품수출 중단을 결정
 - * ZARA, H&M, Uniqlo, NIKE, Adidas, IKEA, P&G, Unilever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, 스포츠용품, 소비재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철수 결정
 -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도 중단하면서 교역의 전부문에서 러시아와의 연계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전개
- 서방국가들이 이처럼 러시아에 대해 상품교역을 제한하는 정책은 과거 이들이 피제재국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.
- 이처럼 수입상품의 공급망이 파괴되어 피제재국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사례가 미국과 서방의 對이란 제재 및 이로 인한 이란의 의약품 공급망 붕괴 사례
 -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1979년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제재가 확대되었는데, 2011년 미국의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제재와 이후 이어진 포괄적인 제재로 인해 이란은 사실상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.¹⁾

1) Sogol Setayesh and Tim K, Mackey, "Addr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Iranian drug shortages i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: promoting access to

- 특히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해 자국의 약한 산업 부분인 의약품 시장과 관련해 큰 타격을 받았는데,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품 부족은 의료시스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음.²⁾
- 또한 쿠바에 대해 미국은 1961년 1월부터 의약품 및 식품의 직접적인 공급을 중단했으며 이후 제3국을 통한 공급에도 제재를 가해 미국산 부품이 10% 이상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시행
-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공급이 사라지자 일부는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충당했으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원조가 끊기자 쿠바는 심각한 상품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음.
 - * 비누, 세제, 휴지 등 일상 생활용품이 바닥난 것은 물론 약 300여 개의 의약품 공급중단
- 미국의 의약품과 식료품 수출에 대한 제재는 쿠바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³⁾

- ▷ 서방의 초기 對러 경제제재는 이란이나 쿠바와 같이 피제재국에 대한 상품수출을 통제하여 러시아 내부의 경제적 혼란 야기 목적
- ▷ 특히, 의약품과 같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특화하거나 경쟁력을 갖고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피제재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상품교역을 통제했다고 볼 수 있음.

□ 사태 중반 이후의 對러 제재

- 러시아에 대한 중요한 제재는 사태 초기 약 3개월 이내에 집중되었으며 이후 기존 제재에 대한 보완적인 제재가 추가되고 있음.

medicines and health diplomacy,” *Globalization and Health*, 12-31, 2016, p. 3.

2) Peivand Bastani et al. “Challenge of Politico-Economic Sanctions on Pharmaceutical Procurement in Iran: A Qualitative Study,” *LIMS*, Vol. 47, No. 2, 2022, p. 153.

3) Robert W. McGee, “Trade Sanctions as a T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,” *Commentaries on Law & Public Policy*, Volume 2, 2004, pp. 97-101.

- 러시아의 주요 인사나 기관에 대한 인적 제재를 추가하고 있는데 제재 대상 리스트에 새로운 명단을 지속적으로 등재
- 최근 서방측이 도입한 새로운 제재안으로는 ‘유가상한제’가 있으며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구매가격 상한을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EU와 미국 등 서방국 간 합의
- 원유구매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할 경우, 해당 원유의 운송 선박 및 해운사는 보험 및 관련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.
* EU 회원국의 경우, 자국 선박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
- 본 제재는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개월 단위로 국제원유가격을 재검토하여 가격을 변경하기로 결정
- 여기에 더하여 2023년 2월 5일부터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상한제를 적용하여 디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100달러 이하,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45달러 이하로 거래되어야만 보험사 이용이 가능
-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 러시아에 대한 제9차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는데, 여기에는 수출통제 및 인적제재 등이 포함⁴⁾
 - 168개의 기업과 조직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새로 등재하여 러시아가 야간투시경, 항법장치, 전자부품, 주요 화학물질 및 신경작용제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
 - 항공 및 우주산업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를 확대하여 러시아에 항공기 및 드론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항공기 엔

4) “Russia’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: EU adopts 9th package of economic and individual sanctions,” <https://consilium.europa.eu/en/press-releases/2022/12/16/russia-s-war-of-aggression-against-ukraine-eu-adopts-9th-package-of-economic-and-individual-sanctions>, (검색일: 2022년 12월 19일)

진 및 부품 수출금지

-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합법화하는 러시아 방송매체인 NTV, Rossiya 1, REN TV, Perviy Kanal 등 4개 방송사의 라이선스를 취소
 - 러시아 내에서 EU 기관의 시장조사, 여론조사, 광고, 제품테스트, 기술검사 서비스 등의 금지
-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제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방식 강화
- 사태 직후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, 총 8회의 군사원조를 승인했으며 총금액은 33억 달러로 회당 평균 금액은 4억 1,250만 달러임.

[표 1] 사태발발 이후 美의 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승인금액

순번	승인 일자	금액(백만 달러)	순번	승인 일자	금액(백만 달러)
1	2022.2.25	350	13	2022.7.8	400
2	2022.3.12	200	14	2022.7.22	175
3	2022.3.16	800	15	2022.8.1	550
4	2022.4.5	100	16	2022.8.8	1,000
5	2022.4.13	800	17	2022.8.19	775
6	2022.4.21	800	18	2022.9.8	675
7	2022.5.6	150	19	2022.9.15	600
8	2022.5.19	100	20	2022.10.4	625
9	2022.6.1	700	21	2022.10.14	725
10	2022.6.15	350	22	2022.10.28	275
11	2022.6.23	450	23	2022.11.10	400
12	2022.7.1	50	24	2022.11.23	400

* 자료: "US Security Assistance for Ukraine," *In Focus*,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, 7, Dec, 2022, p. 1.

- 사태발발 3개월이 경과하고 6월 이후 12월까지 미국의 원조 승인 총 횟수는 16회, 총금액은 81억 5,000만 달러, 회당 평균 금액은 5억 940만 달러를 기록
- 회당 원조 승인 평균금액은 초기 3개월에 비해 이후 약 23% 상승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원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.
- 하반기 군사원조 금액이 확대된 것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‘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(HIMARS)’ 등의 고도화된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- 미국 등 서방은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, 향후 지원금액과 내용에 대한 추이 주의 필요
 - * 2023년 2월 3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거리 150km인 ‘지상발사형 소구경폭탄(GLSDB)’을 제공 제공을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다양화 추세

- ▷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 보다는 초기제재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.
 - ▷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원조 등이 지속 및 확대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군수용품의 체계도 점차 심화되는 추세

2

제재의 영향 및 경과

□ 서방의 對러 제재 지향점

○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무력 행동의 추동력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사태를 조기종식 시키기 위한 것

- 서방의 對러 수출통제는 서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등 첨단 부품의 수출을 금지하여 러시아 무기의 기능 저하 및 작전 수행능력 감소 의도

*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부품의 자체 생산이 어려워 대부분의 부품을 서방으로부터 수입해오던 상황

-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피해해짐에 따라, 무력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부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기대

- 과거 쿠바 및 이란에 대한 수출통제로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과 같은 인도적인 품목은 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물류 등의 제재로 인해 사실상 러시아 소비재 시장에서 서방제품의 단기 공백 발생

* 이후 러시아 정부의 병행수입조치 완화로 제3국을 통한 서방의 제품 수입은 3/4분기 이후 일정부분 정상화 궤도에 이름

- 2022년 4월 오스틴(Lloyd Austin) 美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에서 “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일을 다시 벌이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”이라고 언급하여⁵⁾ 미국 내부에서 對러 제재에 대한 인식의 합의가 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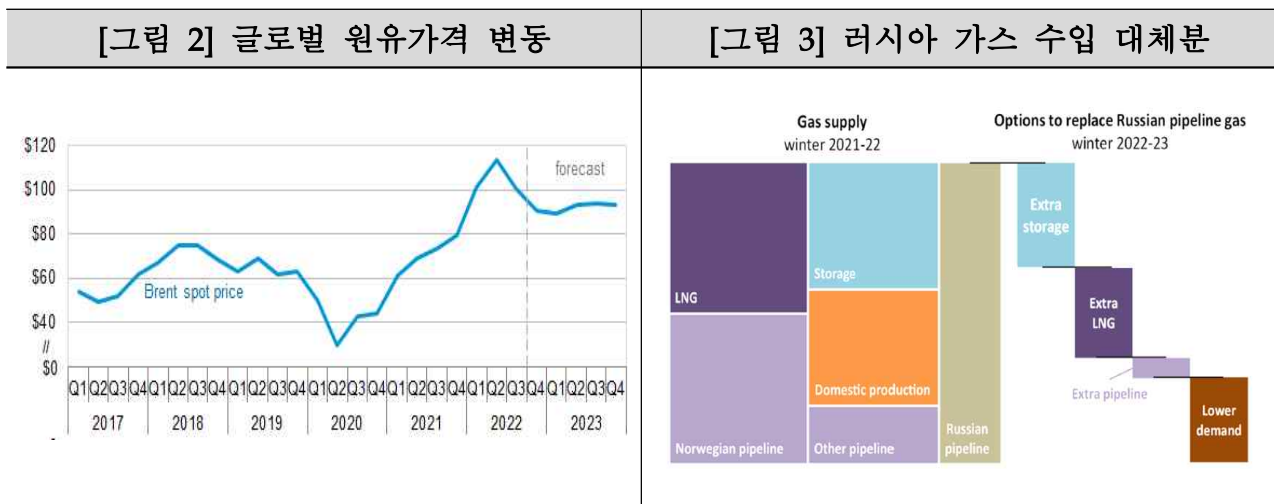
5) “Austin’s assertion that US wants to ‘weaken’ Russia underlines Biden strategy shift,” <https://edition.cnn.com/2022/04/25/politics/bide-administration-russia-strategy/index.html>, (검색일: 2022년 12월 21일)

- 러시아의 약화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협력관계인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 -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상하는 중국과 향후 국제질서 리더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왔음.
 - *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급성장하였고,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통상·기술규제 등을 시행하여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 지속
 - 최근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나 태양광 등 미래의 핵심산업 영역에서 배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는 등 산업부문의 견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‘산업-안보-가치규범’을 연계하는 대립으로 변화
 -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의 견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치·외교·군사·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신뢰가 공고화 되고있음.
 - *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선 러시아의 기술을 첨단 제품과 군수 분야에 활용하는 등 산업·군사 분야에서도 밀접한 협력관계가 이어져 오고있음.
 - 미국은 동맹관계이자 중국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러시아의 국력약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
□ 對러 제재의 부작용

- (글로벌 에너지 시장 혼란)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에너지공급자 역할을 하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공급부족 등 에너지 시장의 혼란 지속
 - 2022년 초 배럴당 70달러 중반 수준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사태가 본격화된 직후 9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으며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직후 WTI 기준 장중 139달러까지 치솟음.
 - * 이후 3/4분기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원유가격은 4/4분기 이후 2023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하락세로 반전

-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주요 루트인 ‘노드스트림(Nordstream)’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중단으로 급등한 이후 다시 고점대비 1/3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 지속
- * 2021년 1월 MWh당 13유로였던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가격은 2022년 8월 340 유로까지 상승하였다가 수요감소 및 기후 영향 등으로 2022년 12월 100유로 전후로 하락



- * 주: (좌) 브렌트유 기준 가격 (배럴)
- * 자료: (좌) EIA, “Short Term Energy Outlook” 1, Dec, 2022 (우) IEA, “World Energy Outlook 2022,” Nov. 2022, p. 33.

- 유럽연합의 경우 2021~22년 겨울 동안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약 20%에 이르렀으나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름부터 비축분을 확대하는 등 수급 혼란 발생
- 국제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의 에너지 부족 현상을 초래했는데, 스리랑카·파키스탄·방글라데시 등은 에너지난에 이은 경제위기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됨.
- (곡물가격 상승) 對러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은 흑해봉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귀결

- 서방의 강한 경제제재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주요 수출루트인 흑해 봉쇄로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을 저지
 - *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4위, 밀 5위의 세계적인 곡물 수출 대국
-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국제식량가격은 급등하였고 신흥국들은 식량위기 직면

〈 곡물수출협정과 추진 경과 〉

- (곡물수출협정) 세계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2022년 7월 22일 「흑해곡물 이니셔티브(Black Sea Grain Initiative)」라는 명칭으로 체결된 조약
 - 국제적인 식량가격 상승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되자 다자가 참여하는 협정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을 인도적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논의 시작
 - 이후 러시아, 우크라이나, 튀르키예와 UN이 4자 회담 이후 동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3개 항구에서 곡물수출 재개
 - 이스탄불의 「곡물수출조정센터」에서 선박의 흑해항해 보장 및 선박의 무기선적 여부 검사
 - 2022년 7월 체결 이후 러시아의 흑해봉쇄 해제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이 해소되면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, 밀, 해바라기 제품 등의 수출이 가능하게 됨.
- (러시아의 입장 변복) 러시아 정부는 자국 함대에 대한 공격을 이유로 협정 참여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의 변동성 확대
 - 러시아는 2022년 10월 29일 국방부 성명을 통해 흑해 내 자국 함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밝히며 협정 참여 중단 선언
 - 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 등에 대한 협정 참여국의 다자간 확약이 보장된 후 흑해봉쇄 해제 및 곡물 수출 재개
 - * 곡물 수출의 봉쇄 및 재개 여부에 따라 국제곡물가격은 등락을 반복

- (러·중 중심의 경제블록 강화)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서방의 가치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심력 강화
 - 러시아와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(SCO)의 2022년 9월 정상회의에서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
 - * SCO는 회원국으로 러시아, 중국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, 인도, 파키스탄 등이 가입되어 있음.
 - 이란도 사실상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SCO는 서방과 대척점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힘을 모으는 협력체로 재평가되고 있음.
 - 최근 미국 ‘외교협회(CFR, Council on Foreign Relations)’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권위주의 세력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러시아, 중국, 이란, 북한 등을 ‘불만의 축(The Axis of the Aggrieved)’으로 규정하고 이 축의 강화를 2023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의 하나로 언급⁶⁾
 -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고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러시아는 중국·이란 등과 경제적 협력에 치중하는 모양새
 - *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러·중간 에너지·교역·금융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의 물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-이란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루트의 개발에 착수

□ 우크라이나 사태 및 對러 제재에 대한 시각

- (서방의 관점)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지속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강경한 입장에 대한 일부 국가에서 우려의 시각도 상존
 -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은 종전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

6) “Five Foreign Policy Stories to Watch in 2023,” <https://www.cfr.org/five-foreign-policy-stories-watch-2023>, (검색일: 2022년 12월 26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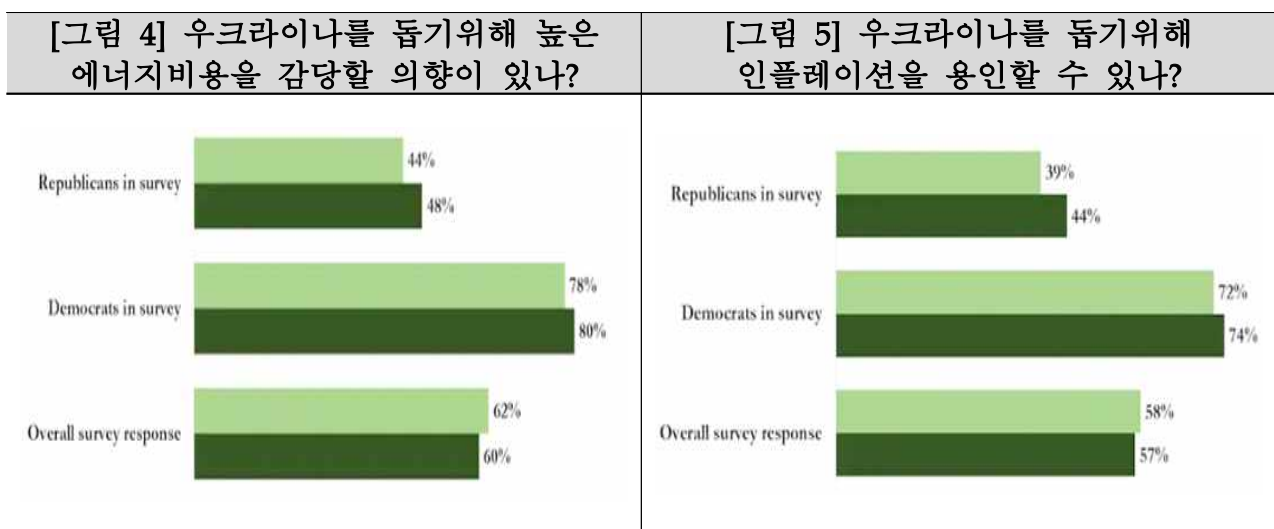
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사태의 추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재를 보완하고 있음.

- 다만, 일부 국가 정상들의 경우,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

* 특히, EU 내에서 친러 국가로 평가받는 헝가리 등은 EU의 對러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견지

-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자국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“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를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, 동시에 우리가 러시아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”며⁷⁾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서방국가들의 반발을 일으킴.

- 키신저 前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국력이 크게 약화될 경우 세계질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 피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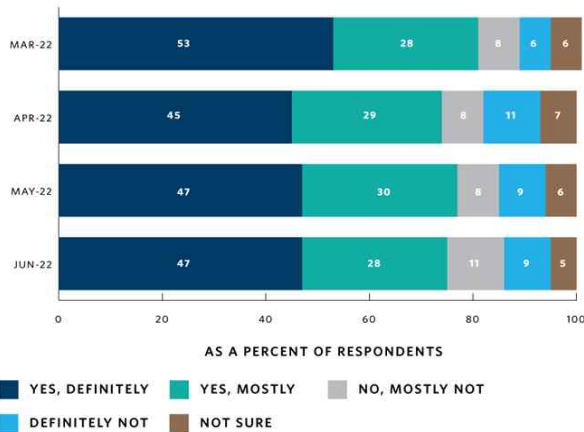
* 주 1: 미국에서 2022년 7, 10월에 거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임
2: 그림의 흐린색 부분은 7월의, 짙은색 부분은 10월의 결과

7) “Future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 must include guarantees for Russia – Macron,” <https://www.tass.ru/world/1545261>, (검색일: 2022년 12월 26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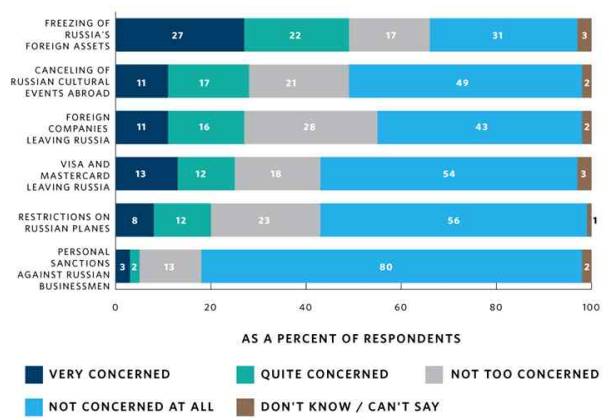
* 자료: Univ. of Maryland, "American Public Attitudes on the Ukraine War: Round 3,"

-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여론도 여전히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데 ‘우크라이나를 돕기위해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?’라는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대답은 2022년 7월 62%에서 10월 60%로 하락
- 또한, ‘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는가?’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2022년 7월 긍정적인 대답은 58%였으나 10월에는 57%로 미세한 하락세 감지
-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우크라이나 옹호 여론은 여전히 높은 편이나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과반을 밑도는 수준이며 사태 장기화와 경기하락 여부에 따라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질 가능성 있음.
- (러시아의 관점)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反제재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여론 추이는 대체로 정부에 우호적
 - 러시아 정부는 계속되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등 맞대응 기조 유지
 - 2022년 12월 초부터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‘유가상한제’를 도입하여 러시아의 원유판매수익을 제한하자, 러시아도 同 제도에 동참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원유, 석유제품 판매 제한 수출금지 시행
 - 러시아는 정책기조상 서방의 제재에 대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
 - 러시아 카네기센터에서 2022년 7월까지 75%의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 유지

[그림 6]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지하는가?



[그림 7] 對러 제재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?



* 자료: Denis Volkov and Andrei Kolesnikov, "My Country Right or Wrong: : Russian Public Opinion on Ukraine,"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, Sep. 2022, pp. 3-14.

- 또한 '서방의 제재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'을 묻는 응답에서는 '러시아의 해외자산 동결(27%)'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다른 항목은 낮은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경제제재에 대한 우려나 영향은 낮음.
-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'레바다 센터(Levada center)'의 조사결과도 이와 유사한데 2022년 11월 기준, 자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적극 지지(42%)와 지지(32%)가 합계 74%로 부정적인 의견(20%)을 앞섬.⁸⁾
 - * 이 결과는 사태 직후인 2022년 2월의 지지 의견(68%)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러시아 내에서 서방의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방증
- 러시아 역외의 反정부 독립언론 기관이 2022년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러시아 국민의 39%는 제재 이후 가족소득이 감소했으며 16%는 중요 의약품의 시장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평가⁹⁾

8) "Conflict with Ukraine: November 2022," 12, Dec. 2022, <https://www.levada.ru/en/2022/12/12/conflict-with-ukraine-november-2022/>, (검색일: 2023년 1월 2일)

9) "Бедность против Телевизора," <https://www.cronicles.report>, (검색일: 2022년 1월 2일)

II

러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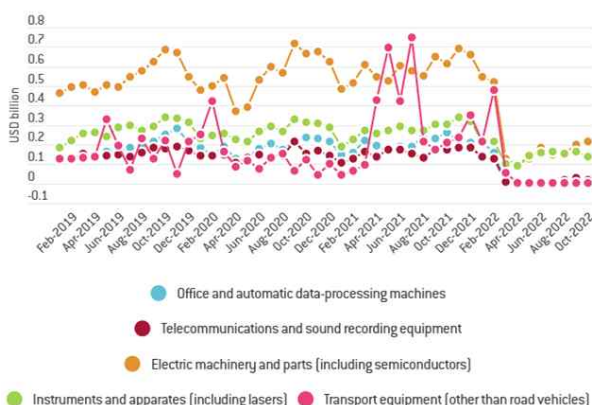
1

국별 교역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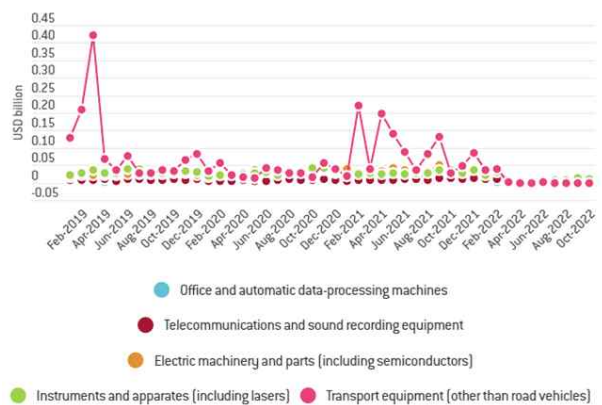
□ 러시아의 국별 수입 현황

- (비우호국)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수출통제가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의 수입하는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
 - 유럽연합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계류, 전자제품, 통신장비 등 모든 품목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.
 - 2022년 2월 기준 82억 7,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EU의 수출은 4월에는 31억 3,000만 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더 이상의 하락없이 40억 달러선에서 하방경직성 유지

[그림 8] 러시아의 품목별 對EU 수입



[그림 9] 러시아의 품목별 對미국 수입



* 자료: Bruegel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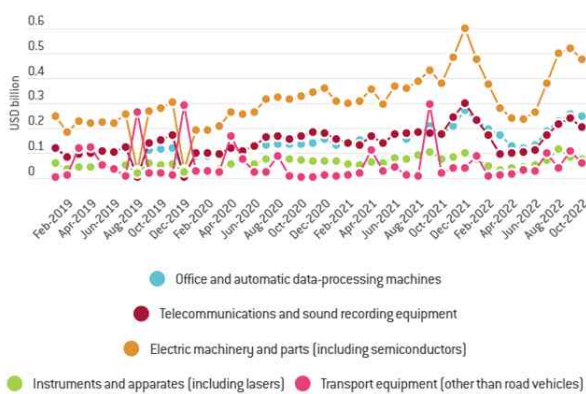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對러 수출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제재 이전에도 큰 편은 아니었으나 제재 도입 이후에는 제로 수준으로 수렴

- 영국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, 경제제재 이후 실질적인 수출은 거의 없는 상황
- 러시아와의 대표적인 교역국인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2021년 1~10월 수출금액은 48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 1~10월에는 134억 달러로 줄어들어¹⁰⁾ 수출통제의 영향이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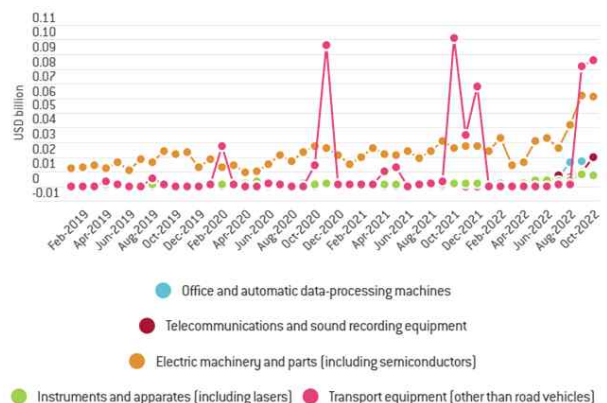
○ (우호국) 우호국 가운데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 주로 공산품 수출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 확대

-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2년 1월 73억 7,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2월부터 시작된 서방의 금융제재 등의 영향으로 인해 3~5월 급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70억 달러대로 회복
 - *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기계류, 전자제품, 통신장비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
- 우호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된 국가는 튀르키예인데, 최근 3년간 수출금액이 6억 달러를 초과한 적이 없었으나 2022년 9~10월은 각각 11억 5,000만 달러에 달함.

[그림 10] 러시아의 품목별 對중국 수입



[그림 11] 러시아의 품목별 對튀르키예 수입



* 자료: Bruegel Institute

10) 독일 통계청 (<https://www-genesis.destatis.de>)에서 저자계산

- 주요 우호 교역국 가운데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,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인 기계, 전자, 통신제품의 인도 제품 경쟁력이 높지 않은 데 기인
- (중앙아시아) 우호국 가운데,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을 눈여겨 볼 만한데, 러시아의 상품부족 문제로 인해 기계류 등 수입 증가
- 제재 이후 유럽으로부터 상품수입이 어려워지자, 일부 품목에서 카자흐스탄을 통한 우회수입이 확대

[표 2]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 증가 품목(증가율 순)

(단위: 백만 달러)

구분	품목	‘21.3/4까지	‘22.3/4까지	증가율(%)
1	기계, 장비, 측정기기, 자동차 등	319.3	1,227.3	284.3
2	기타	8.5	26.0	205.8
3	나무, 목재, 펄프, 종이류	14.9	44.6	199.2
4	건축자재	10.0	22.0	128.7
5	화학제품(고무, 플라스틱 포함)	633.4	1,287.2	103.2

* 자료: “Товарооборот Казахстана с Россией вырос на 5%,” <https://www.finprom.kz/ru/article/tovarooborot-kazahstana-s-rossiej-vyros-na-5>, (검색일: 2023년 1월 4일)

- 서방이 수출을 금지한 기계, 장비류의 카자흐스탄을 통한 수입이 크게 늘었으며 2021년 3/4분기까지 약 3억 2,000만 달러였던 수입금액은 2022년 3/4분기까지 12억 2,700만 달러를 기록
- 고무나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제품류의 수입도 같은 기간 6억 3,340만 달러에서 12억 8,720만 달러로 103.2% 증가
-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도 2021년 1~11월간 18억 7,120만 달러에서 2022년 1~11월에는 27억 9,800만 달러로 확대¹¹⁾

- (기타) 중앙아시아 이외에도 기타 인근 국가를 통한 러시아의 우회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
 - 아랍에미리트(UAE)의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,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2022년 3/4분기까지 UAE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비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57% 증가한 55억 달러에 달했음¹²⁾
 - UAE 정부는 이처럼 단기간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UAE로 이주하면서 이들을 통해 사업이 확장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.
 - 조지아의 對러시아 수출도 2022년 크게 늘어났는데, 2022년 1~10월 까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2021년 동기대비 70%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
 - 이처럼 인근 국가들을 통한 러시아의 우회수입 확대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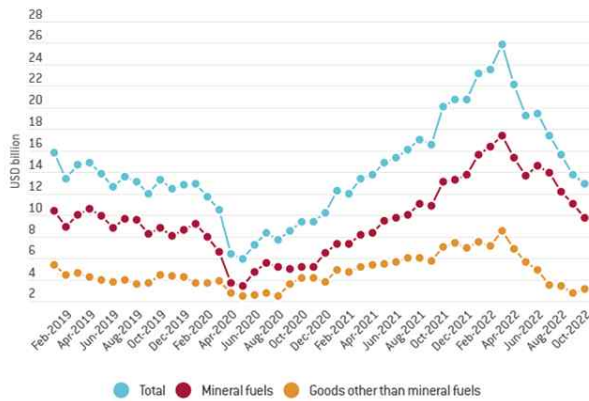
□ 러시아의 국별 수출 현황

- (비우호국)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인해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
 - 제재 이전 러시아의 對EU 수출은 2020~2021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월 에너지 173억 달러, 비에너지 상품 85억 달러를 수출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
 - * 에너지 상품의 수출 증가는 주로 원유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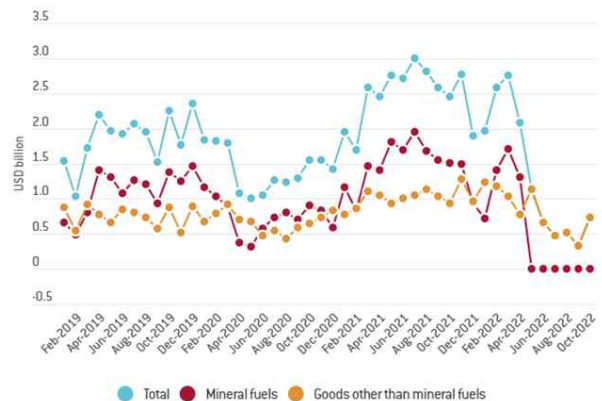
11) “Россия опередила Китай и стала главным партнёром по торговле для Узбекистана,” <https://www.gazeta.uz/ru/2022/12/21/trade>, (검색일: 2023년 1월 4일)

12) “UAE-Russia Non-Energy Bilateral Trade Up 57%,” <https://www.middleeastbriefing.com/news/uae-russia-non-energy-trade-up-57/>, (검색일: 2023년 2월 27일)

[그림 12] 러시아의 對EU 수출



[그림 13] 러시아의 對미국 수출



* 자료: Bruegel Institute

– 對EU 에너지 수출은 2022년 10월 기준 9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EU로서는 단기간 내에 러시아의 수입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

–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, 2021년 1~10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약 312억 달러였으나 2022년 같은 기간에는 343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¹³⁾

* 국제 에너지가격은 상승하였으나 독일의 對러 에너지 의존은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

– 미국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 수입원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러시아의 對미국 에너지 수출은 22년 4월 13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제로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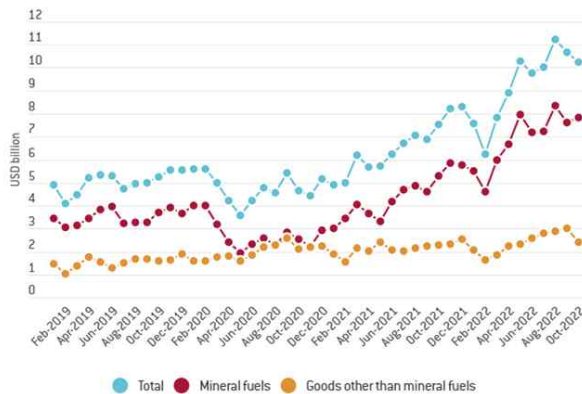
– 이 밖에도 영국에 대해 2022년 2월 기준 24억 달러에 달했던 러시아의 수출은 4/4분기 들어서 제로 수준으로 감소

○ (우호국)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중국 등 주요 우호국에 대한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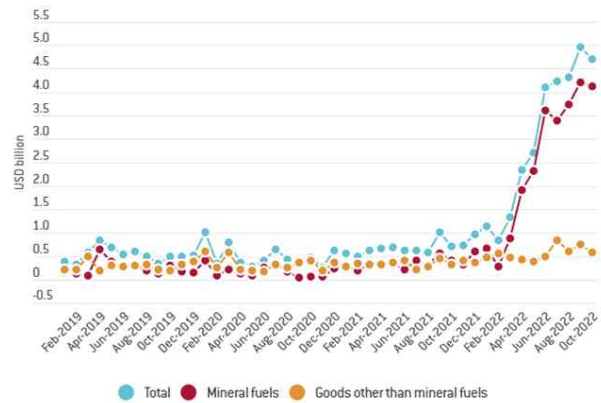
13) 독일 통계청 (<https://www-genesis.destatis.de>)에서 저자계산

-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22년 2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 7~10월까지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

[그림 14] 러시아의 對중국 수출



[그림 15] 러시아의 對인도 수출



* 자료: Bruegel Institute

- 인도에 대한 수출 증가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2022년 2월 기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2억 7,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0월에는 41억 2,000만 달러까지 확대
- 과거 튀르키예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연간 5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으나 2022년 3월부터 이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10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
- * 러시아의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은 에너지보다 일반 상품 비중이 높았는데, 제재 이전 20~30억 달러 수준이던 동 수출금액도 제재 도입 이후에는 40~50억 달러대로 확대

2

외국인 직접투자

□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對러 직접투자과 특징

-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도별로 등락이 크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유럽의 투자가 높은 비중 차지
-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은 2018년 87억 8,500만 달러에서 2019년 319억 달러, 2021년에는 40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나 연도별 편차는 큰 편

[표 3] 연도별 對러 FDI 상위국 순위: 2018~2021년

(단위: 백만 달러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1	네덜란드	키프러스	키프러스	키프러스
2	영국	네덜란드	버뮤다	버뮤다
3	스위스	영국	네덜란드	영국
4	싱가포르	아일랜드	영국	네덜란드
5	버진 아일랜드	홍콩	룩셈부르크	아일랜드
6	프랑스	프랑스	아일랜드	룩셈부르크
7	바하마 제도	카타르	바하마제도	독일
8	오스트리아	바하마제도	프랑스	바하마제도
9	버뮤다	버진 아일랜드	독일	프랑스
10	저지	버뮤다	스위스	스위스
총 금액	8,785	31,975	9,479	40,450

* 자료: Central Bank of Russia

- 러시아 투자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들에는 네덜란드, 키프러스, 버뮤다, 버진 아일랜드, 바하마 제도 등 조세회피처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 자본의 우회투자인 것으로 추정

-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 상위권 국가는 독일, 프랑스, 영국, 스위스 등 유럽계 국가들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,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.
- 한국은 2018년 1억 1,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2019~2020년에는 각각 9,200만, 7,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억 달러를 밑돌았으나 2021년에는 1억 1,000만 달러 투자로 1억 달러 상회¹⁴⁾
- 일본은 2018년 3억 4,500만 달러로 높은 투자금액을 기록했으나 2020년 7,900만 달러, 2021년에는 2,1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
- 중국의 對러시아 직접투자 금액은 2018년에는 마이너스에서 2019년 1억 3,6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5,300만 달러와 1,1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유럽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임.
-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로 광공업과 도소매업, 금융업, 제조업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고도화된 유럽기업들이 주요 투자 주체가 되었음.
- 최근 수년간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이끌어 왔는데, 2019년 투자금액은 72억 달러를 상회했고 2020년 약 45억 달러, 2021년에는 58억 달러를 상회

[표 4] 연도/주요 분야별 對러 외국인직접투자: 2018~2021년

(단위: 백만 달러)

분야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도소매업	-7,075	7,246	4,536	5,832

14) Central Bank of Russia, "Direct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: flows by instrument and partner country," <https://www.cbr.ru>, (검색일: 2023년 1월 6일)

금융·보험업	8,368	6,604	-1,346	28,854
제조업	8,289	6,608	-1,894	3,877
광공업	5,043	8,446	8,142	4,137

* 자료: Central Bank of Russia

- 금융·보험업 분야도 최근 투자유입이 크게 늘어났던 영역인데, 2018년 투자금액은 약 83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288억 달러까지 확대
- 제조업과 광공업 부문은 매년 꾸준히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문으로 2021년 기준 각각 약 39억 달러와 41억 달러의 투자가 유입되었음.
- 러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기업으로는 자원개발 분야의 브리티시페트롤리엄(BP), 도소매업 분야의 아산(Auchan), 제조업으로는 니산(Nissan) 등의 기업이 있음.
 - BP는 소비에트 해체이후 러시아에서 오랜기간 동안 자원개발에 참여해왔으며 러시아 최대의 원유개발기업인 로스네프트(Rosneft)의 지분 19.75%를 보유하는 등 자원개발분야의 대표적인 외국 투자기업
 - * 이 밖에도 Shell(영국), Total(프랑스) 등 글로벌 에너지 주요 기업들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
 - 프랑스계 소비재 유통기업인 Auchan은 러시아 전역에 약 280여 개의 대형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러시아 유통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.
 -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Nissan은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을 건설하며 러시아시장에 진출한 이래, 2012년 르노와 함께 러시아 자동차 기업인 아프토바즈(Avtovaz)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해 음.

□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기업 동향

-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직후부터 다수의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를 추진하는 등 출구전략 가동
 - 2022년 2월부터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사태를 유발한 러시아에 대한 도덕적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경제제재가 본격화되자 서방 대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업 철수 증가
 - 美 예일대학교 ‘최고경영자리더십연구소(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)’는 러시아 내 외국기업의 현지 사업 및 투자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‘철수(Withdrawal)’에서 ‘사업지속(digging in)’까지 5단계로 구분¹⁵⁾
- (철수기업)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한 기업들로, 총 355개의 기업이 포함
 - BP는 보유중인 러시아 원유개발기업 Rosneft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 결정
 - *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신규 원유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,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모두 정리하면서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
 - Carlsberg는 러시아에서 맥주 등 음료를 생산하고 판매하였으나 러시아 내 생산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생산시설의 일부를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하는 방안 추진
- (유보기업) 일시적으로 전체 또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반쯤처리 등 목적의 일부 기능만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약 495개의 기업 해당

15) Yale School of Management, 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, “Over 1,000 Companies Have Curtailed Operations in Russia-But Some Remain,” <https://www.som.yale.edu/story/2022/over-1000-companies-have-curtailed-operations-russia-some-remain>, (검색일: 2023년 1월 10일)

- 스웨덴의 의류기업인 H&M은 러시아에서 운영 중이던 매장을 모두 정리하고 對소비자 판매 중단
- 미국계 경영컨설팅 기업인 Bain은 러시아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러시아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 중단
 - *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금지
- (사업축소 기업) 중요 사업의 규모는 줄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여전히 운영 중인 기업으로 총 171개 기업이 해당
 - Coca-Cola는 러시아 내의 사업장 운영은 중단하였으나 동사가 운영 중인 Costa Coffee는 사업 지속
 - GE는 러시아에 대한 대부분의 기계 및 장비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의료기기, 전력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기계는 판매 지속
- (신규투자 보류기업) 현재 사업은 지속하고 있으나 신규투자를 보류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기업으로 161개 기업을 포함
 - Domino's Pizza는 러시아 내에 수백 개의 매장을 운영을 지속하고 있지만,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과 신규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
 - 스위스의 자원개발 기업인 Glencore는 러시아에서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중단하였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중단이나 지분 매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.
- (사업 지속기업)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227개 기업이 해당
 - 프랑스계 소비재 유통기업인 Auchan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동

일하게 정상적인 사업 유지

- 오스트리아계 Raiffeisen Bank는 서방의 對러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금융소매업 지속
- 예일대학교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대기업 중 약 70%의 기업이 부분 혹은 전면적으로 러시아에서의 사업에서 철수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영 지속
 - 예일대학교는 철수기업, 유보기업, 사업축소기업의 3개 기업군을 적절히 대응하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모니터링 대상 1,389개 기업 중 1,001개인 72% 차지(2023.1.9. 기준)
 - 모니터링 대상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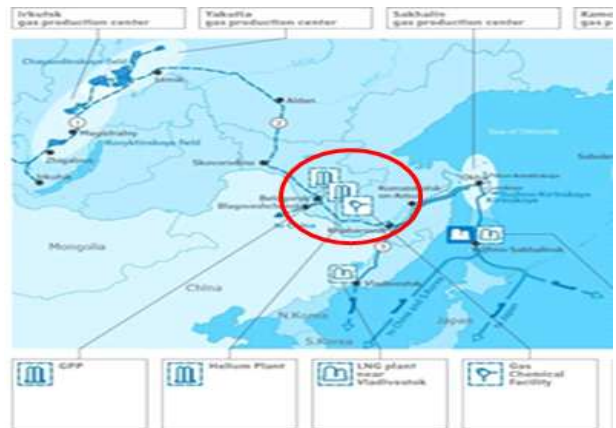
□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호국 기업 동향

- (중국) 일부 대기업의 경우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 유지
 - 중국의 대표적인 원유·가스 개발기업인 Sinopec은 러시아 기업인 Sibur와 합작으로 시베리아 아무르(Amur) 지역에 추진 예정이었던 가스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중단
 - 同 프로젝트는 Sibur와 Sinopec이 6:4의 비율로 공동투자하여 연간 약 270만 톤의 폴리머를 생산하는 화학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4년 중반 완공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일정 연기 불가피

[그림 16] Amur 화학단지 전경



[그림 17] Amur 화학단지 위치



* 자료: Большая Азия

- ICBC(중국공상은행)와 Bank of China(중국은행) 등은 러시아에서의 원자재 구매를 위한 펀딩을 제한하는 등 일부 기능 축소
 - * 대형 중국은행들은 서방의 對러 제재에 대한 2차 제재의 영향을 우려하여 러시아에서의 적극적인 사업 전개에 소극적인 입장
- 중국의 세계적인 드론 제조기업인 DJI는 자사 제품이 양국 간 분쟁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 철수
- 하지만, 대다수의 중국기업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업기회 발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
- 지난 2022년 3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차량호출업 운영기업인 ‘디디(DiDi)’는 중국 내에서 러시아 시장 철수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에 부딪히자 다시 러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재개 결정
- 러시아 국가두마(연방의회 하원) 볼로딘(Vyacheslav Volodin) 의장은 외국기업의 75.9%가 러시아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¹⁶⁾ 서방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

16) “Володин рассказал что 76%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сохранили бизнес в России,” <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5758947>, (검색일: 2023년 1월 11일)

행하고 있음을 시사

- 하지만,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기업들도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투자를 크게 확대하지는 않는 상황
- (인도) 대체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다름없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글로벌 기업은 사업 철수
 - 인도 기업 중, 철수기업은 Infosys(IT)와 Tata Steel(철강)의 2개 기업이 포함되는데, 글로벌 기업으로서 서구의 사업지속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철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.
 - Infosys는 2022년 3월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철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소수의 직원들이 남아서 장비의 정리·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¹⁷⁾
 - Tata Steel도 2022년 3월 “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인도, 영국, 네덜란드 등의 사업현장에서 러시아산 원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”이라고 발표¹⁸⁾
 - 이 밖에도 IndusInd Bank는 루블화와 루피화의 환전을 중지하는 등 러시아에서의 일부 기능을 축소하였으나 러시아 은행과 루피화 기반 무역거래를 허용하는 9개 인도은행에 포함되는 등 기타 사업은 정상운영

17) “Infosys still operation from Russia eight months after saying it was pulling out,” <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22/nov/04/infosys-still-operating-russia-rishi-sunak-akshata-murty>, (검색일: 2023년 1월 17일)

18) “India’s Tata Steel to stop doing business with Russia,” <https://www.argusmedia.com/en/news/2323810-indias-tata-steel-to-stop-doing-business-with-russia>, (검색일: 2023년 1월 17일)

3

혁신·기술·금융 부문

□ 서구와의 혁신·기술 협력

○ 러시아는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오랜기간 동안 지속해왔는데 주요 협력 대상국은 독일로 다양한 기관과 교류의 역사가 깊음.

- 소비에트 시기인 1987년 러시아와 독일은 이미 과학기술 관련한 협약을 통해 기술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대학 및 교육·연구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킴.
-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독일의 지원기관으로 The International Bureau는 독일교육부의 대외협력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독일과 러시아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공동의 R&D 수행에 있어 자금지원의 역할

[표 5] 러시아와 과학기술 협력 중인 주요 독일기관

기관형태	기관명	활동 및 협력방향
기금 지원기관	The International Bureau	- 독일 교육부의 대외협력 집행기관 - 독일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러시아 교육기관과 R&D 협업을 하도록 자금지원
	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	- 양국 간 교육기관 협력 및 젊은 과학자 교류, 연구자 지원 수행 - 1993년 모스크바에 사무소 개소
	German Research Foundation	- 1970년대부터 당시 소비에트와 과학기술 협력관계 유지 - 2003년 모스크바에 사무소 개소
	Alexander Von Humboldt Foundation	-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연구자금 지원
연구기관	Helmholtz Association	-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교류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모스크바에 사무소 개소 - 러시아과학아카데미, ROSATOM, 러시아기초연구재단 등과 협력
	Max Planck Society	- 양국 간 차세대 과학자 교류

	Fraunhofer Society	- 엔지니어링, 자동화 기술, 화력발전소, 교통, 운송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
공공기관	German House of Research and Innovation	-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목적 - 2009년 모스크바에 사무소 개소
	East-West Science Center, University of Kassel	- 바이오, 나노테크놀로지, 환경연구 분야 네트워킹 활동
	The Koch-Mechinikov Forum	- 의료·보건분야 연구협력

* 자료: Gabriele Gorzka and Ekaterina Piotrowski, *Knowledge Transfer Between Germany and Russia: Drivers, Instruments, and Impacts*, (Munich: Kassel University Press GmbH, 2016), pp. 20-33.에서 저자 정리

-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나, German Research Foundation 등의 기관은 주로 자금지원의 형태로 양국의 과학자들이 공동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
- Helmholtz Association, Max Planck Society와 같은 연구기관들도 각 분야별로 러시아의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는 창구 역할
- 러시아와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의 연구 수행
 - 러시아와 독일은 2005년 4월 「교육, 연구, 혁신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(Strategic Partnership in Education, Research and Innovation)」을 체결하고 과학분야에서 공동의 연구를 수행
 - 양국의 교육부가 주관한 2012~2014년의 공동 이니셔티브 기간에는 나노테크놀로지, 환경기술, 에너지효율성, 헬스케어, 광학기술 등이 주요 협력대상이 되었음.¹⁹⁾
 - 2018년 12월 러시아연방 과학 및 고등교육부 장관과 독일의 교육·과

19)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Germany, "Cooper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," <https://www.bmbf.de/en/cooperation-with-the-russian-federation-2266.html>, (검색일: 2023년 1월 11일)

학·연구부 장관은 ‘러시아-독일 교육, 과학, 연구와 혁신 로드맵 (Russian-German Roadmap for Cooperation in Education, Science, Research and Innovation)’을 체결

- 이 협약은 이후 10년간 양국이 △집단연구인프라 구축, △우선분야협력 (바이오, 보건의료, 기후·환경 등), △차세대 연구자지원, △혁신, 학문, 사회분야 등의 4가지 부문에 대해 공동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합의²⁰⁾

* 이를 통해 첨단기술연구에서 협력을 지속하고, 협력의 지속성과 성과를 제고하며 차세대 연구자들의 활동을 고무시키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러-독 학제 간 과학연구센터 ‘(G-RISC, German-Russian Interdisciplinary Science Center)’는 자연과학, 환경과학, 생명공학, 재료공학 등의 분야를 망라하여 양국 간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자금의 집행은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를 통해서 시행²¹⁾

○ 서구의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여 과학기술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

- German Research Foundation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 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였고,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도 양국 고등기관 간 공동 행사, 자금지원 등을 모두 유보²²⁾
- 독일 정부는 2022년 3월, 러시아와의 ‘교육, 과학, 연구와 혁신 로드맵’을 포함하는 모든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²³⁾

20)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, “Российско-германская «Дорожная карт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, науки,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инноваций» становится бре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-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,” 12 июля 2019, https://minobrnauki.gov.ru/press-center/news/?ELEMENT_ID=21950, (검색일: 2023년 1월 12일)

21) G-RISC 홈페이지, <https://www.g-risc.org>, (검색일: 2023년 1월 12일)

22)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, “Russia’s attack on Ukraine: Important information for students and researchers,” <https://www.daad.de/en/the-daad/ukraine>, (검색일: 2023년 1월 12일)

23) “Germany sets out new details of scientific sanctions against Russia,” <https://www.science>

-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도 2022년 6월, 연방정부 차원의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는 중단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각 국가기관들의 기술협력 중단에 따라, 러시아는 서구 국가들로부터 혁신기술 이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

□ 우호국과의 혁신·기술 협력

- (중국) 러시아는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공동의 자원 투자 및 연구 지속
 - 러시아의 ‘기초연구재단(Russian Fund for Basic Research)’과 중국의 ‘자연과학재단(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)’은 1990년대부터 매년 공동의 기금마련을 통해 양국의 과학분야 연구자들을 지원
 - 매년 양국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연구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
- 2014년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서구 국가들, 특히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크게 훼손되었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이 속도를 내기 시작
 -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-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「새로운 시대에 포괄적인 협력관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중국인민 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 선언」을 체결하면서, 기존의 과학, 기술 및 혁신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
 - 이를 위해 2020년과 2021년을 ‘러시아와 중국의 과학, 기술 및 혁신

business.net/news/germany-sets-out-new-details-scientific-sanctions-against-russia, (검색일: 2023년 1월 12일)

협력의 해'로 지정하고 혁신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대화의 정기적인 수행을 지속하며 과학 및 기술혁신을 위한 러-중 공동기금을 조성²⁴⁾

* 러시아 직접투자펀드(RDIF)와 중국 국부펀드는 각각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원 조성

- 2020년 8월 개최된 양국 간 부총리급 회의에서는 △2020~2025년 기간 동안 과학,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러-중 협력의 로드맵 구성, △코로나19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, △원자력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합의²⁵⁾
-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이후에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○ (인도) 러시아와 인도는 2021년 12월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명시

-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인 2021년 12월 양국 간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의 주요 분야는 데이터, 에너지, 의료기술 및 제약, 극지 연구, 양자기술, 수자원, 기후, 해양과학, 식음료 기술 등이 포함
- 기존의 양국 간 협력은 원자력 및 우주 분야에 집중되어있었으나 협력 분야를 크게 확대하고 주요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
- * 러시아는 인도에 대해 원자로와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양국 간 우주협력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옴.

24)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, “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,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,” 5 июня 2019, <http://www.kremlin.ru/supplement/5413>, (검색일: 2023년 1월 13일)

25)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, “Россия и Китай открыли Годы научно-технического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,” 26 августа 2020, <http://government.ru/news/40273/>, (검색일: 2023년 1월 13일)

-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기반을 갖고 있는데,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협력관계는 유지

[표 6] 러시아와 인도 간 과학기술 협력

분야	주요 협력 내용
기초과학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동 R&D 지원) 천체, 화학, 물리, 수학, 생물, 의학, 공학, IT 등의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- (재료과학) ‘야금 및 신소재센터’를 통한 광학, 레이저분광학 분야 공동 연구 - (해양과학) 유인과학 잠수정의 설계 및 개발 - (신기술) 데이터기술, AI, 나노기술, 양자기술 등의 공동 세미나 지원 - (극지연구) 양국 극지연구소의 상호방문 및 상호데이터와 서비스 제공 - (천체물리학) 전파천문학, 고에너지물리학, 천문학 등의 공동 프로젝트
응용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5개 분야) 나노과학, IT,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 시행 - (기술기업, 스타트업 지원) 러 Skolkovo 및 테크노파크를 통한 기술기업 협력
혁신 및 기술 상업 R&D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국의 혁신클러스터 및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구성, 보조금 지급, 성장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
청소년 혁신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학기술을 통한 양국 청소년 교류
다자간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BRICS) COVID-19 관련 백신개발, 바이러스 연구,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 수행, 젊은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- (SCO) 젊은 연구자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

* 자료: 주러 인도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저자정리 (<https://www.indiainembassy.moscow.gov.in/>)

-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응용연구, R&D 촉진 협력, 혁신분야 청소년 교류, BRICS 및 SCO 등 다자간 틀 안에서 협력 등 공동 연구기반 공고화

□ 무역결제·금융시장

-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대외 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통화의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일부 성과를 거두어왔음.

- 러시아 전체 교역에서 루블화 결제 비중은 2017년 14.5%에서 2021년에도 같은 비중을 유지하여 큰 차이가 없었음.
- 하지만, 미 달러화의 비중은 같은 기간 68.2%에서 54.5%로 눈에 띄게 축소되었으며 대신 유로화 사용비중은 15.6%에서 29.7%로 크게 확대되었음.

[표 7] 러시아 대외무역에서 통화별 결제 비중(%): 2017~2021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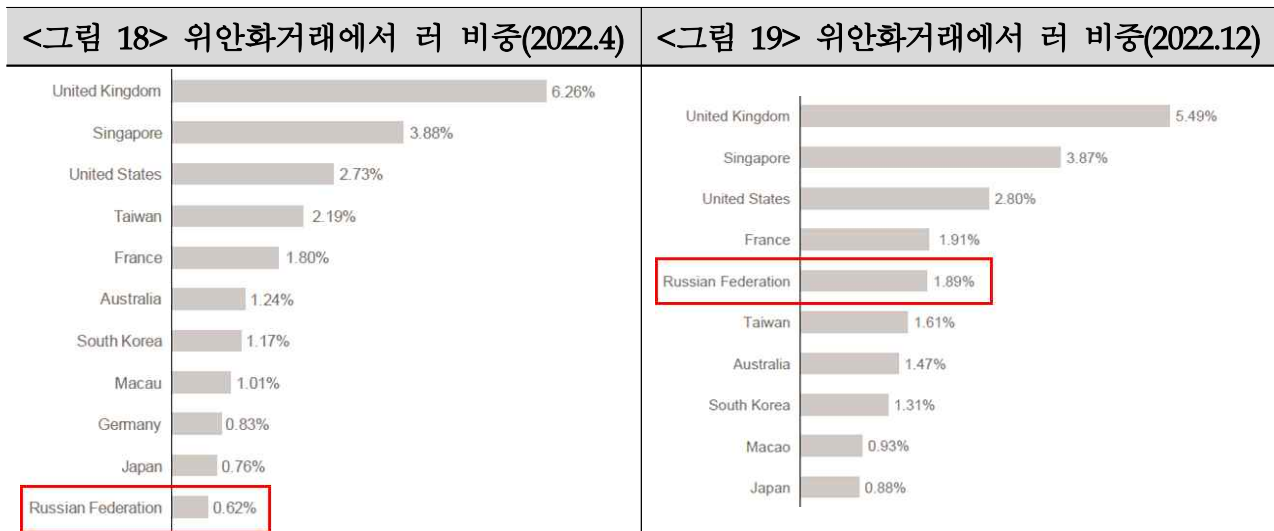
구분	통화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전체	루블화	14.3	13.6	15.0	14.7	14.3
	미 달러화	68.2	67.3	62.0	55.7	54.5
	유로화	15.6	17.3	20.6	27.5	29.7
	기타	1.9	1.8	2.4	2.1	1.5
BRICS	루블화	11.7	11.1	21.3	11.1	14.2
	미 달러화	78.5	73.1	35.1	24.0	36.6
	유로화	3.5	11.1	37.9	59.2	43.0
	기타	6.3	4.7	5.7	5.7	6.2
EAEU	루블화	69.6	70.2	69.8	69.0	70.4
	미 달러화	22.7	20.5	20.1	20.6	18.8
	유로화	6.3	7.9	7.8	7.4	8.3
	기타	1.4	1.4	2.3	3.0	2.5

* 자료: 러시아 중앙은행

- BRICS의 경우, 통화별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, 달러화 사용 비중은 78.5%에서 36.6%로 크게 하락했으며 유로화 사용이 3.5%에서 43.0%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.
- * 루블화 사용은 2017년 11.7%에서 2021년 14.2%로 소폭 증가
- EAEU 내에서의 결제는 기존에도 루블화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큰 변화는 없는 반면, 달러화 비중의 감소와 유로화 비

중의 확대는 추세적으로 이어짐.

-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러시아의 대외결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.
- 러시아는 미 달러화의 결제비중을 줄이면서 우호국인 중국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.
- 2022년 4월 기준 위안화의 국제결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0.62%로 홍콩을 제외하고 11위를 차지하여 한국(1.17%)보다 낮은 수준이었음.
- * 홍콩은 74.36%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.



* 자료: SWIFT RMB Tracker document center

- 반면, 2022년 12월 러시아의 위안화 사용은 크게 증가했는데 국제거래에서의 비중은 1.89%로 지난 4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도 홍콩을 제외하고 영국, 싱가포르, 미국, 프랑스에 이은 5위를 차지
- 러시아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채권발행이 어려워지자, 위

안화로 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고려

-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원개발기업 중 하나인 Rusal社は 2022년 7월 위안화로 표시된 20억 위안 상당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으며 금광기업인 Polyus社도 8월 46억 위안의 채권발행 성공
- 러시아 최대의 원유개발 기업인 Rosneft社は 2022년 9월 150억 위안 상당의 10년 만기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²⁶⁾
 - * 러시아 정부도 향후 위안화표시 국채를 발행할 것을 예고
- 러시아 최대 은행인 Sberbank도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위안화로 된 채권발행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²⁷⁾
- 모스크바거래소(MOEX)는 2022년 11월부터 중국 위안화로 표시되는 기업채권지수를 공시하고 있음.

26) “Роснефть разместила облигации на 15 млрд юаней,” <https://www.finmarket.ru/bonds/news/5804645>, (검색일: 2023년 2월 14일)

27) “Russia’s largest lender Sberbank may issue bonds in Chinese yuan,” <https://www.zawya.com/en/world/russia/russias-largest-lender-sberbank-may-issue-bonds-in-chinese-yuan>, (검색일: 2023년 2월 14일)

III

러시아의 對제재 대응 방향

1

대내: 수입대체화 정책과 공급 내재화

□ 수입대체화 정책 본격화

- 추가적인 서방 경제제재를 맞아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수입대체화 정책을 강화해 외부 공급망 차단으로 인한 주요 상품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
 - * 러시아의 금번 수입대체화 정책은 2014년에 추진했던 1차 수입대체화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
- 주요 산업부문의 수입대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미 2022년 3월 31일 미슈스틴 총리 명의의 시행령을 통해 주요 부품의 수입대체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급 확대 결정
- 「산업발전에 필수적인 부품생산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개발청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칙개정」에서 정부는 기존에 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기자본 투입금액 비중을 20%로 유지해야만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보조금 지급규정을 완화²⁸⁾
 - * 이를 통해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.

〈 러시아의 1차 수입대체화 정책 〉

-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아, 자국 산

28)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1 марта 2022 г. № 522, "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"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"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ов,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разработку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а комплектующие изделия,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," стр. 1-4.

업역량 강화를 위한 수입대체화 정책(import-substitution strategy)을 전개

-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, 유럽 등 서방국가들은 군수, 금융,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적인 경제제재를 시행
 -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반제재적 성격으로 일정 상품군에서 서방 제품의 자국 수입과 조달 참여 금지 등 다양한 정책실시
 - 궁극적으로, 서구에 의존하는 주요 산업을 발전시켜 자국의 독립적인 경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
- 수입대체화를 위한 주요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자립화 추진
- 주요 20개 산업분야에서 총 2,255개의 산업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
 - 특히, 20개 산업가운데 제약, 무선전자, 항공, 의료, 조선 등의 5개 분야를 우선발전산업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
 - * 제약 산업은 가장 많은 총 601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 일부 경미한 질병치료제를 제외하고 경쟁력 있는 신약을 제조할 만한 기술과 기업이 부재한 상황으로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가 가장 강한 분야 중 하나
- 2014년부터 지속된 수입대체화 정책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산업 부분에서는 러시아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.
- 정부가 수입대체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정부의 대체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여전히 수입의존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.
 - 다만, 식품가공 산업의 경우 북유럽산 유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통해 자국 유제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로컬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.

-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대체할 로컬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최

우선적인 정책으로 제품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했으며 주요 산업별로 별도의 대체화 방안 마련 중

□ 소프트웨어 산업 대체화

-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야 중 하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산업
 - 이미 러시아에서 Oracle, SAP, Microsoft 등의 서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업중단을 결정함에 따라, 러시아 내에서 이들 소프트웨어를 대신할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
 - 소프트웨어 분야는 2014년 서방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수입대체화 20개 산업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산업의 디지털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 주요 외국기업의 탈러시아가 가속화되면서 중요한 수입대체화 부문으로 인식됨.
 - 정부는 2022년 7월 11일, 각 산업별로 필요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에 2024년까지 약 371억 루블을 투입하여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.²⁹⁾
 - 이를 위해 정부는 35개의 ‘산업역량센터(индустри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)’를 설립하고 同 센터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체가 필요한 외국 소프트웨어의 우선순위 영역, 유형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
- 산업역량센터는 3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센터는 1개의 산업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인 러시아의 기업들이 포함

29) “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средства на созд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О,” <https://ria.ru/20220711/tekhnologii-1801608410.html>, (검색일: 2023년 1월 25일)

- 35개의 센터는 자동차, 철도 엔지니어링, 항공우주, 화학, 야금, 약학 등의 35개 산업군을 대표하며 각 센터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함
- 예를 들어, 자동차산업센터에는 러시아의 주요 기업인 KAMAZ, GAZ, Sollers Auto, NAMI(국립자동차연구소)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준 논의
- 이러한 작업은 2024년까지 지속될 예정인데, 이들 기업을 통해 기업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입수하고 공급업체의 기술사양 확정
- 2022년 9월 미슈스틴(Mikhail Mushustin) 총리는 산업역량센터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산화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지시
- 2022년 10월 체르니셴코(Dmitry Chernishenko) 부총리는 러시아 소프트웨어 수입대체화를 위해 약 3년간 총 1,900억 루블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이 외국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³⁰⁾
- 러시아는 ‘디지털 통신, 커뮤니케이션 및 매스미디어부’ 산하에 ‘정보보안 역량센터(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)’를 설치하고 산업역량센터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작업을 수행
- 2022년 12월 16일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웨어 부문 수입대체화를 위한 「새로운 산업용 소프트웨어(Новое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)」와 「새로운 일반시스템 소프트웨어(Новое общесистемн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)」 개발 로드맵 승인³¹⁾

30) “индустри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,” https://www.tadviser.ru/index.php/Статья:Индустриальный_центр_компетенций_%28ИЦК%29, (검색일: 2023년 1월 27일)

31) “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твердили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по импорто замещению ПО,”

-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으며 개발비용은 정부 보조금, 기업의 자체 비용, 금융권의 융자 등으로 충당될 예정
-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지금까지 서구의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

[표 8] 러시아 소프트웨어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주요 개발방향

구분	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방향
1	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시스템(Computer Aided Engineering)
2	컴퓨터 지원 설계 시스템(Computer Aided Design)
3	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
4	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(ERP)
5	고객 관계관리 시스템(CRM)
6	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
7	컴퓨터 운영체제(OS)
8	지리정보 시스템(GIS)
9	건물 및 구조물 모델링 프로그램
10	제품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

* 자료: “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твердили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по импорто замещению ПО,”

- 하지만, 정부의 소프트웨어 수입대체화 개발로드맵에는 주요 개발 방향성만 명시되어있으며 각 사안별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원투자 및 인력 투입계획 등은 알려지지 않음.
- 문제는 서구 IT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중단 결정과 함께 많은 러시아의 IT 전문가들도 러시아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

https://www.digital.gov.ru/ru/events/42299/?utm_referrer=https%3a%2f%2fyandex.com%2f&utm_reffer=https%3a%2f%2fdigital.gov.ru, (검색일: 2023년 1월 27일)

*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4월까지 사태 초기에만 러시아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한 엔지니어의 수는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,³²⁾

-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IT 엔지니어들을 징병에서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불투명

□ 반도체 수입대체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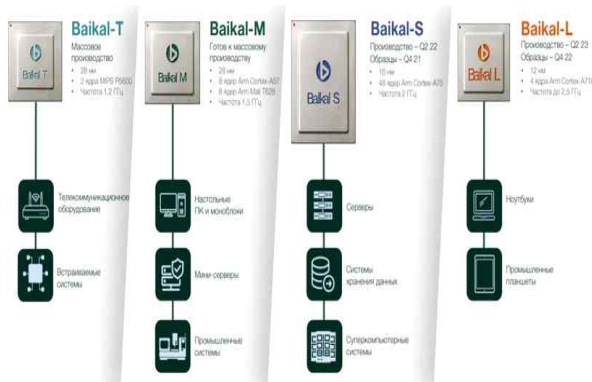
○ 러시아 내에서 일부 반도체 생산은 지속되어왔으나 주요 반도체 선진국의 기술과 생산용량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

- 러시아의 일부 기업들은 구소련 시절부터 모스크바 인근인 Zelenograd 과학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 온 경험이 있음.
- 하지만, 시장경제 도입 이후 이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및 생산 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사실상 저기술 수준의 반도체 설계 및 일부 생산만 가능한 수준으로 남음.
-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모두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.
- 미국 등 서방은 Baikal Electronics, MCST JSC, CTC Modul, ITC Elvis 등 러시아의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등재하여 서방기업들과의 관련 제품 수출입 및 협력을 차단한 상황
- 러시아에서 주문한 반도체를 생산하던 대만의 TSMC社は 2022년 5월 이후 러시아산 반도체의 생산 및 제품배송을 중단한 상태
- * TSMC는 러시아 반도체 주문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기업

32) "Russia Plays Tug-of-War as its Talented IT Workers Head for the Door," <https://www.themoscowtimes.com/2022/04/01/russia-plays-tug-of-war-as-its-talented-it-workers-head-for-the-door>, (검색일: 2023년 1월 30일)

- 러시아는 자국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1월 「2030년까지 러시아연방 전자산업 발전전략(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)」을 채택³³⁾
 -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2020년에 채택한 同 산업발전 전략은 전자제품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발전방향 포함
 - 同 전략에서 러시아는 28nm 공정의 웨이퍼 생산체계, 다중회로기판, OLED 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생산공정 구축 등을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수립

[그림 20] Baikal社 개발 프로세스



[그림 21] Baikal M 프로세서



* 자료: 각종 자료 종합

- 현재 65 및 90nm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 Mikron社를 중심으로 28n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갖추 계획
- 소프트웨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문의 수입대체화는 러시아로서는 녹록지 않은 과제

33) “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,” 17, Января 2020 года N 20-р.

- 정부의 반도체 부문 육성계획은 2020년에 수립된 전자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전략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기술 수준이 미약하여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.
- 게다가, 서방의 제재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나 부품 등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
-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³⁴⁾
 - * 따라서 러시아가 자국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은 러시아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중국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대두

□ 전자제품 수입대체화

- 러시아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육성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.
 - 서방의 對러 경제제재를 통해 사실상 同 제품군에 대한 서방의 수출이 중단되었고 러시아 내에서 상품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 발생
 - 휴대폰 등 일부 품목의 경우, 서방 제품의 공백기에 중국산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
 - * 러 최대 전자유통업체인 Eldorado와 M.Video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은 ‘22.1분기 50%에서 4월과 6월은 각각 60%와 70%까지 상승³⁵⁾
- 러시아 정부는 주요 전자제품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해당

34) “России понадобится 15 лет на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,” <https://www.news.rambler.ru/scitech/4860456-rossii-ponadobitsya-let-na-importozameschenie-poluprovodnikov/>, (검색일: 2023년 1월 31일)

35) “Chinese brands see rapid growth in Russia, with popularity on the rise long before sanctions,” <https://globaltimew.cn/202207/1269839.shtml>, (검색일: 2023년 2월 1일)

산업을 단기간 내에 육성하고자 하나,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음.

- 정부가 계획하는 전자제품 수입대체화의 대상에는 TV와 같은 가전 제품은 제외되며 태블릿 PC, 노트북, 스마트폰 등이 포함
- 정부는 2023년에 국내에서 同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약 2,100억 루블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
-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업 평가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2년 9월 ‘컴퓨터 관련 기술 생산의 국산화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’을 마련하고 기업의 현지화 정도에 따라 포인트 부여³⁶⁾

□ 러시아 수입대체화 정책의 도전요인

-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 수입대체화 정책의 시행 이전부터 각 분야에서 별도의 산업화를 추진해왔는데 수입대체화 정책과 전략이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의 정책으로 2020년 6월 승인된 「2024년 및 2035년까지 러시아 연방 제조업 발전을 위한 통합전략(СВОД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)」이 있음.
- 同 전략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항공, 전자, 의약 등 15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각각의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항목을 확정³⁷⁾

36) “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вычисл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и 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и,” https://www.tadviser.ru/index.php/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_вычислительной_техники_и_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и, (검색일: 2023년 2월 1일)

37) ПРИЛОЖЕНИЕ №. 2 к Свод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УТВЕРЖ

- 이 전략계획은 각각의 산업에 있어 구체적인 발전 및 지원계획이 명확하지 않은데,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수입대체화 전략과의 조화 및 단일화가 필요
-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두되고 있는 전자제품의 수입대체화 전략에는 컴퓨터나 휴대용 전화, 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대체화가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으나 2020년의 제조업발전 전략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품목은 누락
-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하나 대외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술 발전에 한계
 - 러시아는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그동안 독일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기울여 왔으나 對러 제재 이후 기술 협력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.
 - 주요 산업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벽 존재
 - * 일부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초과학은 높은 수준이나 기술의 상용화 단계는 낮아 제품개발 등에 있어 문제점 상존
 - 기술 협력의 대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나 이들의 기술이 서구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, 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

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6 июня 2020 г. № 1512-р, “СВОД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,” с. 1-27.

2

대외: 협력국 집중화와 대안 모색

1. 국별 협력 집중화

□ 아시아로의 회귀(Pivot to Asia): 중국과의 협력 강화

-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서방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
 -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고립된 경제관계를 중국을 통해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
 - 중국으로서는 2018년 이후로 미국과 기술·통상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우군에 서면서 연대
 - * 중국은 2010년대 이후 경제력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지위를 넘보는 강대국이 되었으며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한 견제 확대
 - 러시아와 중국 모두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지속보다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수렴되었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주로 러시아의 입장 옹호
-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(Samarkand)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 만나 다양한 부문에서 합의 도출
 - 양국 정상은 SCO 정상회담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과 공동으로 ‘사마르칸트 선언(Samarkand Declaration)’을 채택³⁸⁾
 - * 선언에 참여한 국가로는 러시아, 중국, 인도, 키르기스스탄, 파키스탄, 타지키스탄, 우

38) “The Samarkand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 Council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,”

즈베키스탄임.

- 회원국은 어떤 형태의 국제적인 테러, 분리주의(separatism), 극단주의(extremism) 등의 확산에 반대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
 -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구조(global economic governance)의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원국 간 상품, 자본, 서비스,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환경 조성
 - 회원국은 로컬 통화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교역에서 회원국 간 통화사용 비중을 증대하기로 합의
 - * 여기에는 러시아의 루블화와 중국의 위안화 사용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.
 - 회원국은 상호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IT 분야 관련 장관급 회담의 정례적 개최 추진
 - SCO의 틀 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, 외교,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향후 확대될 SCO의 외연과 공고화를 고려할 때 관계가 심화될 수 있는 기틀 마련
- 러-중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교역을 확대해왔음에도 추가적으로 2022년 6월 신규 천연가스전 개발에 합의³⁹⁾
- 2022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(SPIEF)에서 중국 CNPC와 러 Gazprom은 극동지역을 통한 가스공급의 확장과 관련한 기술협약 체결
 - * 본 협약의 내용에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망인 ‘시베리아의 힘’ 가스관의 공급확장에 관한 합의사항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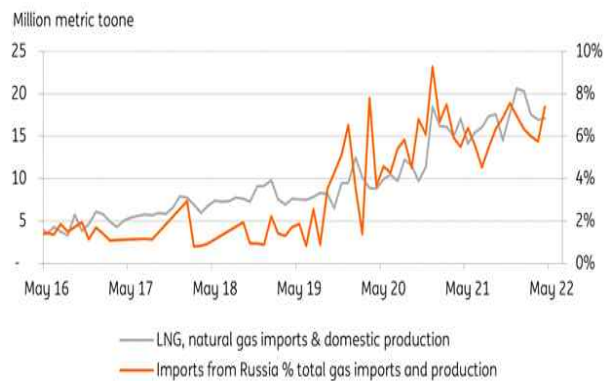
39) “China, Russia sign new trade agreement on energy and food, expected further unleash potential,” <https://www.globaltimes.cn/page/202206/1268392.shtml>, (검색일: 2023년 2월 7일)

-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 30년간의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‘시베리아의 힘’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음.
- 同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은 초기에는 2020년 연간 41억m³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4억m³, 2022년에는 200억m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.

[그림 22]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(붉은색)



[그림 23] 중국의 러 천연가스 수입



* 자료: (좌) Hydrocarbons Technology, (우) ING

- 양국 간 합의에 따라, 기술적 문제의 해결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
- 또한,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추진되어왔던 ‘시베리아의 힘 2’ 가스관 건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
 - * ‘시베리아의 힘 2’ 가스전은 시베리아-몽골-중국 신장지구를 연결하는 가스전으로 2024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27~2028년경부터 가스공급 추진
- 중국은 러시아의 EU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입자로 자리잡기는 어려우나, 러시아로서는 對EU 수출의 일정부분을 중국이 수입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에너지 협력 지속 전망⁴⁰⁾

- 러시아 정부는 외환보유고나 무역거래 비중에서 중국 위안화의 비중을 높이는 등 중국과의 금융협력은 가속화되는 추세
 - 2022년 1월 이후 러시아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자산구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위안화 비중은 2016년 1월 0.1%에서 2022년 1월에는 16.1%까지 확대되었고 추세로 미루어볼 때 보유비중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
 - 러시아 재무부는 2022년 12월 30일 국부펀드(NWF)의 자산비중에서 비우호국 통화비중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전에 30%였던 위안화 비중을 60%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⁴¹⁾ 향후 위안화 비중 증가 예상
 - 서방의 對러 제재로 러시아의 달러화 결제가 제약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은 2022년 1~3분기까지 14%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
 - 금융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‘탈달러화(de-dollarization)’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안화 사용 확대는 중국에게는 자국통화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추진 동력 상존

□ 인도 및 이란과의 협력 확대

- 서방의 제재 하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우방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러시아에게는 서방의 제재를 희석시킬 중요한 파트너

40) 2022년 1~10월 기준,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36%, EU는 42%를 차지하였으며 천연가스 수출의 경우, EU의 비중이 60%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이 에너지 수입이 EU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음. EIA, “Country Analysis Brief: Russia,” 17, Jan. 2023, pp. 11-13.

41) МинФин России, “О новой нормативной структуре средств Фон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и золоте,” https://www.minfin.gov.ru/ru/press-center?id_4=38327, (검색일: 2023년 2월 9일)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12월까지 인도의 모디(Narendra Modi) 총리와 총 4차례의 전화통화와 1차례의 회담을 통해 상호관계 강화 지속
- 특히, 2022년 9월 SCO 정상회담 이후 있었던 양자 간 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“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에 대해 계속 고지할 것”이라고 하였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만족감을 표명⁴²⁾
- 이에, 모디 인도 총리도 “양국 간 관계는 향후 더욱 개선되고 강화될 것”이라고 화답하는 등 양자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있음.
- * 이어 2022년 12월 있었던 전화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투자, 에너지, 농업, 교통, 물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논의
- 러시아의 탈달러화 정책은 인도가 추진하는 ‘루피(rupee)의 세계화’와 부합하는데, 양국은 교역 시 루피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거래가능은행을 2022년 12월 승인하는 등 금융관련 협력은 확대될 것

[표 9] 인도 SVRA(Special Vostro Rupee Account) 상호 승인은행

연번	인도 승인 은행	러시아 승인 은행
1	UCO Bank	Gazprom Bank
2	VTB India branch	VTB
3	Sberbank India branch	Sberbank
4	IndusInd Bank	BCS Bank, Soyuz Bank, MTS Bank, Tinkoff Bank, Credit Europe Bank, PSCB Bank
5	Union Bank of India	Ros Bank
6	HDFC Bank	Soyuz Bank
7	Canara Bank	MTS Bank

42) President of Russia, “Meeting with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,” <https://www.en.kremlin.ru/events/president/news/69362>, (검색일: 2023년 2월 9일)

* 자료: Reserve Bank of India

- 2022년 11월 러시아와 인도 외무부 장관의 양자 간 회담에서 인도 측은 서방의 원유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의도가 없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것이라는 의향을 분명히 하는 등⁴³⁾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- 이란도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는 국가 중 하나로, 우크라이나 사태발발 이후 밀접한 관계 지속
 - 2022년 7월 19일 러시아·이란·튀르키예 3국 정상은 이란의 테헤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(Ali Khamenei)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⁴⁴⁾
 - 이후 이란석유공사(NIOC)와 러시아 Gazprom은 약 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란 내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프로젝트 개발에 합의
 - * 이란은 잠재력 있는 대형가스전 및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개발 및 상업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기대
 - 2023년 1월 이란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EAEU는 각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9월에 정식으로 이란과의 FTA를 발효할 예정
 - 2023년 1월 22~23일 양일간 러시아 두마(하원)의원 대표단은 이란

43) "India praises 'strong and steady' relationship with Russia as foreign ministers meet in Moscow," <https://www.scamp.com/news/world/article/3198945/india-praises-strong-and-steady-relationship-russia-foreign-ministers-meet-moscow>, (검색일: 2023년 2월 10일)

44) "What was discussed at the Russia-Iran-Turkey summit?" <https://www.euronews.com/2022/07/19/vladimir-putin-visits-tehran-for-talks-with-leaders-of-iran-and-turkey>, (검색일: 2023년 2월 10일)

을 방문하여 라이시(Ebraim Raisi) 이란 대통령과 만나고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

- 2023년 1월 러시아와 이란의 중앙은행은 양국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SPFS(러)와 SEPAM(이란)을 연계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향후 러시아와 이란의 은행은 서구의 SWIFT망에 연결없이 금융거래 가능
- 이란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활용될 공격용 드론을 생산하기로 합의하고 고위급 인사가 2023년 2월 생산 예정지를 시찰하는 등 서방의 견제 하에서도 군사적 협력관계 유지
 - * 생산 예정지는 모스크바 동쪽으로 약 960km 떨어진 ‘알라부가’ 산업단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□ 글로벌협의체를 통한 영향력 확대

- 러시아와 CIS 주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연합체인 EAEU의 강화는 러시아에게 경제협력을 다변화하는 주요 루트로 작용
 - 러시아는 2023년 EAEU 의장국이 되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월 23일 회원국 수반에게 한 연설에서 EAEU가 “부상하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강력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”고 언급⁴⁵⁾
 -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“EAEU 통합의 심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할 것”이라고 부연하여 EAEU 통합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회원국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
 - 다만, EAEU 회원국 모두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 러시아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과 같이

45) “Путин: ЕАЭС имеет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, чтобы стать одним из мощных полюсов в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,” <https://www.tass.ru/politika/16858715>, (검색일: 2023년 2월 10일)

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어 러시아로서는 이들의 협력을 적절히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

- 러시아는 BRICS의 틀 안에서 미국 등 서구의 제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
 - 러시아는 BRICS 회원국인 브라질, 인도, 중국, 남아공 등과 함께 각국의 통화를 바스켓으로 하는 공동의 단일통화 창설 논의 중
 - *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서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동의하는 입장
 -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BRICS에 알제리, 이란, 아르헨티나 등이 이미 가입신청을 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, 이집트, 튀르키예 등도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.
 - 남아공은 2023년 2월 자국 영해에서의 해군 군사훈련을 BRICS 회원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 공동으로 시행⁴⁶⁾

2. 물류 운송루트 개발

□ 물류운송루트의 대안 (1): 국제남북운송회랑 개발

- ‘국제남북운송회랑(INSTC,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)’은 러시아와 이란, 인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물류운송루트로, 서방의 물류제재를 회피하는 루트로 러 정부의 관심 집중
 - ‘러시아-이란-인도’를 연결하는 INSTC는 지난 2000년 9월 12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, 이란, 인도 3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

⁴⁶⁾ “South Africa to hold naval drill with Russia, China,” <https://www.aa.com.tr/en/africa/south-africa-to-hold-naval-drill-with-russia-china/2792935>, (검색일: 2023년 2월 13일)

- 당시 3개국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카스피해를 거쳐 페르시아만과 인도양까지 연결하는 교통로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 11개국이 옵저버로 참여
- 남북으로 약 7,200km를 연결하는 운송로는 육로와 해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러시아 서부지역과 중동을 연결하는 발틱해와 북해를 거치는 루트에 비해 운송기간과 비용 대폭 감소
- *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예상 소요일정은 18일로 기존의 루트에 비해 약 15일 이상 적게 소요



* 자료: (좌) Economic Ideal, (우) Eurasian Research Institute

- 무엇보다도 이 루트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회피해 우호국인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운송루트로 의미가 있으며 카스피해 서안의 바쿠(Baku)를 통해 BTK 철도와도 연계 가능
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 아쉬가바드(Ashgabat)에서 개최된 제6회 카스피해 정상회담(Caspian Summit)에서 “INSTC는 카스피해 지역의 국제물류허브화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평가⁴⁷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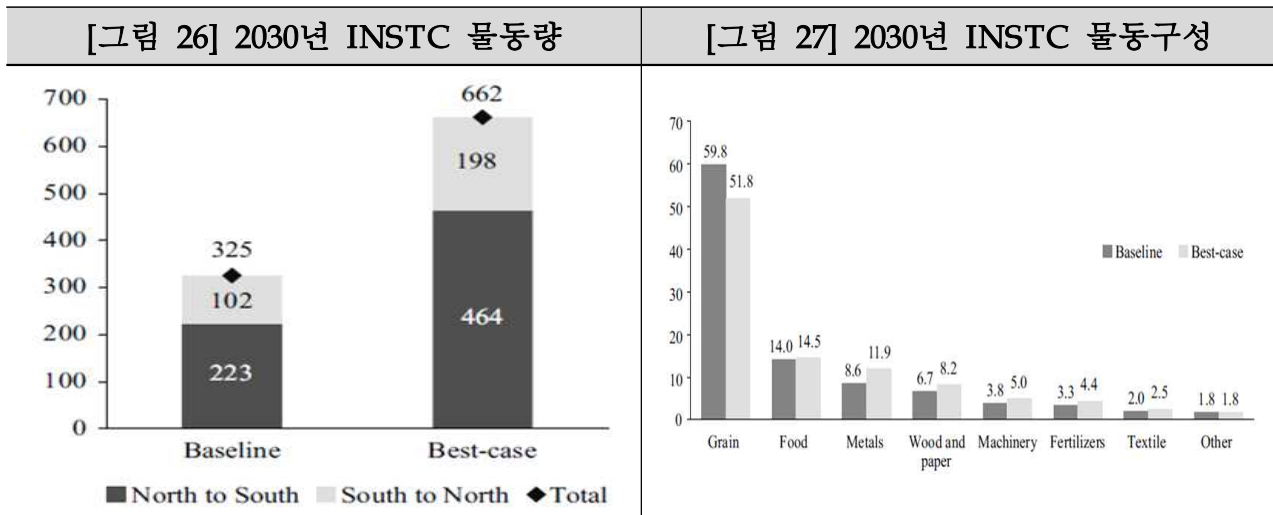
47) “6th Caspian Summit,” President of Russia, <https://www.en.kremlin.ru/events/president/news/68779>, (검색일: 2023년 1월 19일)

- 이란과 인도의 경우에도 同 프로젝트의 완성을 통해 러시아뿐만 아니라,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류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루트로 볼 수 있음.
- 이 운송루트는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연결구간 중, 카스피해를 통과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며 2022년 6월 시범운행 시작
 - △카스피해 서안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서부회랑, △카스피해를 해상으로 관통하는 종단회랑, △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는 동부회랑으로 구분
 - 현재 러시아 내부 루트는 철도운송이 가능하지만 이란 내륙운송망이 완공되지 않아 ‘라싯(Rasht)’~‘아스타라(Astara)’ 구간은 트럭으로 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
 - 2022년 6월, 인도의 물류기업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이란의 반다르아바스를 거쳐 뭄바이까지 카스피해를 해상으로 관통하는 종단회랑을 이용해 2개 컨테이너를 시범운송⁴⁸⁾
 - *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스트라한의 ‘솔란카(Solyanka)’까지 철도로 이동 후, 이란의 ‘반다르 안잘리(Bandar Anzali)’ 항구까지 배로 이동
 - 이 밖에도 수 차례의 시범운행에서 수에즈 운하를 활용하는 루트에 비해 단축된 운송 일정을 기록
- 이란 내부 구간의 철도 루트가 미완공이기는 하지만 2030년까지 물동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INSTC를 기반으로 하는 물동량은 기본적으로 315,000 TEU에서 이

48) “Russia Tests India Freight Direct Via INSTC,” <https://www.russia-briefing.com/news/russia-tests-india-freight-direct-via-instc.html/>, (검색일: 2023년 1월 20일)

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고 물동이 활성화된다는 가정 하에 662,000 TEU에 이를 것으로 추정

- 러시아 등 카스피해 북부에서 이란 및 이란을 비롯한 카스피해 남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추정



* 주: (좌) 단위는 천 TEU, (우) 단위는 %

* 자료: Evgeny Y. Vinokurov, Arman Ahunbaev, and Alexander I. Zaboev, "International North.South Transport Corridor: Boosting Russia's "pivot to the South" and Trans. Eurasian connectivity," *Russian Journal of Economics*, Vol. 8, 2022, oc, 167-169.

- 물동량의 구성을 보면,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곡물로 51.8~59.8%로 추정되고 있으며 식품(14.0~14.5%), 금속(8.6~11.9%)이 그 뒤를 잇고 있음.

□ 물류운송루트의 대안 (2): 북극항로 활성화

- 러시아에서 '북극항로(NSR, Northern Sea Route)'는 '유럽-러시아 북쪽 해역-태평양'을 잇는 구역 중 자국 수역을 통과하는 구간을 의미하며 러시아 동-서를 잇는 최단 항로
- '북극항로'는 유럽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아메리카에 이르는 '북서항로'와 동쪽으로 러시아 방향을 잇는 '북동항로'로 구분

- 러시아 수역의 북극항로는 서쪽의 카라해협부터 동쪽의 프로비데니예만까지 총길이 약 5,600km에 이르며 러시아 서부와 동부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항로
- 근래 계속되어온 지구온난화로 북극권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, 2021년 6월 에버그린호의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안으로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부각
 - * 전세계 물동량의 약 10%가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 운송선인 에버그린호가 장기간 좌초하면서 글로벌 물동 운송에 큰 차질
- 무엇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서방의 물류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와의 물류루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극항로의 발전과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
-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를 2024년 8,000만 톤, 2030년 1억 5,000만 톤, 2035년 2억 2,000만 톤 수준으로 수립
 - * 2021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은 약 3,500만 톤 수준
- 상기의 물동량 목표는 현재 수준에서 매우 도전적인 것이지만, 2022년 4월 투르트네프(Yuri Turtnev) 부총리는 2030년까지 최대 2억 톤까지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더 낙관적인 입장 표명⁴⁹⁾
- 정부는 2022년 서방의 對러 제재에 따른 서방기업들의 북극항로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Novatek, Gazprom Neft 등 러시아 기업들이 진행하는 북극지역 원유개발사업 등으로 북극항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정부는 또한 2023년 북극항로의 물동량 목표치를 3,600만 톤으로 설정하고 북극항로와 극동지역을 연계하는 해상운송을 강화할 계획

49) “Amid Ukraine War, Russia’s Northern Sea Route Turns East,” <https://www.thediplomat.com/2022/12/amid-ukraine-war-russias-northern-sea-route-turns-east/>, (검색일: 2023년 2월 20일)

- 또한, 향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러 극동북극개발부와 북극항로 운영관리 주체인 Rosatom社は 북극항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8개 화주기업과 화물운송보장관련 협약 체결
 - * 여기에 더해 이와 유사한 협약을 북극지역 광산개발 기업들과도 체결 추진
-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, 북극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 기업투자가 활발해지고 관련된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러시아의 북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약 132척의 선박이 필요하나 현재 45척만이 운항 중으로 나머지 선박은 건조 중이거나 건조 예정인 상황
 - 북극항로에 활용예정인 선박은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발틱 조선소 또는 극동지역의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나, 건조 능력에 한계가 있어 계획에 대한 생산 지연은 피할 수 없음.
 - 여기에 더해, 서방의 제재로 인해 일부 중요 부품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어려움은 가중
 - 현재 同 항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쇄빙선은 디젤형 3척 및 원자력형 6척 등 총 9척이나, 다수의 쇄빙선 운행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가장 수요가 큰 것은 LNG 운반 선박
 - * 아직까지 물동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채굴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큼
 - 필요한 선박들의 건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물동량 목표도 달성 가능

IV

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

□ 이란의 선례

- 이란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제재의 내용은 현재 서방의 對러 제재와 유사
 -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2006년 UN의 결의안을 시작으로 미국의 ‘포괄적 이란 제재법’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대외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란 경제를 압박
 - * 미국은 2010년 기존의 對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‘포괄적 이란 제재법’을 도입
 - 서방의 경제제재는 △이란으로부터의 수입금지, △이란에 대한 수출통제, △제3국의 이란에 대한 교역 및 투자제재, △금융거래 제한 등 對러 제재의 주요 내용과 유사
- 제재 이후 이란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등 이란은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 - 경제성장률의 경우 ‘포괄적 이란 제재법’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11년에는 전년의 5.8% 성장에서 크게 하락한 2.6%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연속적으로 -7.4%, -0.2%를 기록하는 등 제재의 영향을 받는 모습
 - 상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물가상승률도 크게 나타났는데, 2011년에는 21% 상승한 데 이어,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6%와 39% 상승하였음.
 - 가장 큰 문제는 서구의 제재로 인해 점차 원유수출 및 이에 따른 원유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것인데, 2011년 1,000억 달러를 상회하던

수출액은 2015년은 약 300억 달러까지 하락

[표 10] 제재 이후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: 2010~2021년

	Annual GDP growth, %	Consumer price growth (2010=100%)	Annual inflation rates, %	Volume of oil exports, mn barrels per day	Net oil export revenues (current prices, USD bn)
2010	5.8	100	10	2.2	76.75
2011	2.6	121	21	2.5	101.15
2012	-7.4	152	26	2.1	69.76
2013	-0.2	212	39	1.2	49.85
2014	4.6	248	17	1.1	51.74
2015	-1.3	282	14	1	29.98
2016	13.4	306	8.6	1.9	37.55
2017	3.8	337	10	2.2	55.34
2018	-6.0	394	18	1.5	66
2019	-6.8	551	40	0.651	30
2020	3.4	n/a	30.6	0.404	21
2021	4.1	n/a	40	0.8-1	25

* 자료: World Bank, EIA

- 통화 가치 하락, 달러 부족, 서구산 상품 부재 등의 문제는 이란 경제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난 현상
 - * 환율은 2012년 1월 달러당 18,000 리알에서 2013년 3월 33,500~34,500리알까지 폭등
- 제재에 대한 이란의 대응방식도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비슷한데 우호국 중심의 경제관계구축, 비원유부문 대체산업의 육성 등
 - 에너지 제재로 수출이 불가능한 미국, EU 등 서구 이외의 국가에 대한 할인된 가격의 원유 판매
 - 원유 거래에서 달러화가 아닌 자국 통화 또는 거래상대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거래

- 이란 정부는 2012년부터 철강, 시멘트, 광업 등 비석유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가프로그램 실시 및 보조금 지급 확대
-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시사점을 줌.
 - 경제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는 불균등한 경제성장, 높은 인플레이션, 투자부진, 산업생산 저하, 빈부격차 확대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
 - * 서구기업의 투자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주요 산업부문에서 기술분야 교류가 중단되었으며 특히 원유개발 분야에서 2017년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 전무하여 신기술 도입 중단
 -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비제재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동차, 석유화학 등의 일부 산업이 미약하지만 발전할 수 있었던 점임.
 - 러시아 정부는 과거 이란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서방의 對러 제재에 대한 대응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□ 러시아 경제의 미래

- 향후 러시아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러시아 ‘거시경제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(ЦМАКП, Центр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и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)’는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음.⁵⁰⁾
 - 첫째는 ‘자립경제(Autarky)’ 구축으로, 글로벌경제에서의 고립 및 자체적인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재로서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

50) “Эксперты назвали три сценари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под санкциями,” <https://www.rbc.ru/economics/11/08/2022/62f384ed9a79473c8719c8fc>, (검색일: 2023년 2월 16일)

다고 보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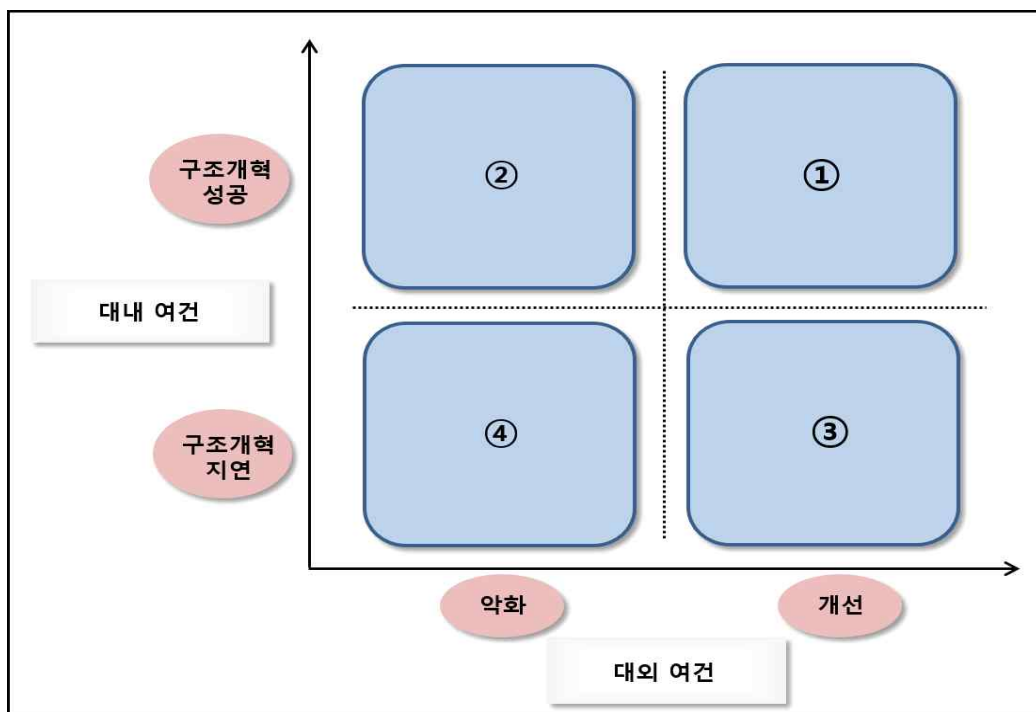
- 둘째는 ‘제도적 관성(institutional inertia)’ 유지로, 현상 타개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여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방안
 - * 부작용으로 낮은 성장 지속, 실업률 및 물가 상승, 투자 및 국민 삶의 질 저하, 비공식 경제 확대 등이 거론
- 셋째는 ‘성장을 위한 투쟁(борьба за рост)’으로,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러시아 경제를 현대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러시아가 향후 러시아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
- 세 번째 시나리오의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, 러시아 경제는 연간 2.5~2.7% 성장, 실업률 5% 이내, 가계소득 2.5~3.7% 증가, 고정자산투자 연간 3.5% 이상 성장 등을 기대
- 러시아 중앙은행은 ‘2023~2025년 국가통화정책 주요 방향’ 보고서에서 향후 러시아 경제의 내부변수를 4가지 측면에서 고려⁵¹⁾
 - ①새로운 경제관계의 수립, ②신산업 발전, ③수입대체화의 성공여부, ④병행수입 메커니즘의 작용
 - 상기 4가지 변수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때, 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발전한다는 시각
- 러시아의 대외 경제환경 및 내부추진 정책의 성공여부를 기반으로 4가지의 시나리오 상정 가능

51) “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еди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нежно-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3 год и период 2024 и 2025 годов,”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, 2022, с. 52.

- * (대외 여건) 대리 경제제재의 지속여부, 중국 등 글로벌경제 상황,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 등
- ** (대내 여건) 러 중앙은행 선정 내부변수 4가지

- (① 1순위의 시나리오) 러시아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
→ ‘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’의 의 3가지 시나리오 중, 세 번째 시나리오의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

[그림 28] 러시아 경제의 대·내외 여건별 시나리오



* 자료: 저자 작성

- (② 2순위의 시나리오) 제재나 에너지 시장 등 대외여건은 악화되나 내부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성장이 성공할 경우
→ 일시적인 거시경제지표는 악화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도약의 기반 마련
- (③ 3순위의 시나리오) 내부적인 구조개혁은 지연되나 글로벌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수혜를 보면서 경기하강의 속도는 지연되는 경우

- 일시적으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쟁력 하락에서 벗어나기 어려움
- (④ 4순위의 시나리오) 서방의 제재가 유지 또는 강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지연되는 경우
 - 2015~2016년의 경기침체 상황의 중장기적 시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상실, 장기간 경기하강 예상
- 중요한 것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수입대체화, 제조업 육성 등의 성공 여부이며, 대외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향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
 - 앞서 서방의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은 이란의 경우, 제조업 육성정책이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③·④의 상황을 반복
 - 외국인투자확대를 통한 산업 및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나 서방의 직접투자는 중단되었으며 기술협력도 어려운 상황이 러시아 신산업 부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.
 - * 2014년 이후 미국과, 2022년 독일과의 기술협력 전면 중단
- 과거 서방의 제재 하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효율적인 성장 메커니즘을 구현한 국가는 부재하였으며 러시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됨.
 - 이란, 쿠바, 베네수엘라, 수단 등 과거 서방의 제재를 받았거나 현재도 제재 가운데 있는 국가들 가운데,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거나 효율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.
 - 이들의 경제규모는 러시아에 비해 작고, 주로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에너지 및 상품 수출입 등의 서방제재에 취약

-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에 비해 경제규모가 크고 산업이 비교적 다변화되어있어 서방으로서는 보다 정교화된 제재정책의 구현이 필요했음.
- 하지만, 현재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다극화 체제로 옮겨가고 있어,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아닌 다자간·블록 간 대립구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
- 러시아는 서구의 가치규범에 동조하기 어려운 중국, 이란, 중동 및 기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과의 경제블록화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공동으로 타개할 수 있는 기회 상존
- 에너지, 금융, 교통·물류 등의 분야는 대외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
- 러시아는 기존에 사실상 실패했던 수입대체화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< 참고 문헌 >

- 문헌 자료 -

- Bastani, P. et al. "Challenge of Politico-Economic Sanctions on Pharmaceutical Procurement in Iran: A Qualitative Study." *LIMS*, Vol. 47, No. 2, 2022.
- EIA. "Country Analysis Brief: Russia." 17, Jan. 2023.
- McGee, R. W. "Trade Sanctions as a T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." *Commentaries on Law & Public Policy*, Volume 2, 2004.
- Setayesh, S. and Mackey, T. K. "Addressing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Iranian drug shortages in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: promoting access to medicines and health diplomacy." *Globalization and Health*, 12-31, 2016.
- "The Samarkand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 Council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."
- "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еди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нежно-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23 год и период 2024 и 2025 годов."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, 2022.
-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31 марта 2022 г. № 522. "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рави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сиди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"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"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оектов,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х разработку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а комплектующие изделия,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."
- ПРИЛОЖЕНИЕ № 2 к Сводн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УТВЕРЖДЕНО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6 июня 2020 г. № 1512-р, "СВОД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4 года 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."
- "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." 17, Января 2020 года N 20-р.

- 인터넷 자료 -

- "Amid Ukraine War, Russia's Northern Sea Route Turns East." <https://www.thediplomat.com/2022/12/amid-ukraine-war-russias-northern-sea-route-turns-east/>. (검색일: 2023. 2.20).
- "Austin's assertion that US wants to 'weaken' Russia underlines Biden strategy shift." <https://edition.cnn.com/2022/04/25/politics/biden-administration-russia-strategy/index.html>. (검색일: 2022.12.21).
- Central Bank of Russia. "Direct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: flows by instrument and partner country." <https://www.cbr.ru>. (검색일: 2023.1.6).
- "China, Russia sign new trade agreement on energy and food, expected further unleash potential." <https://www.globaltimes.cn/page/202206/1268392.shtml>. (검색일: 2023.2.7).

- “Chinese brands see rapid growth in Russia, with popularity on the rise long before sanctions.” <https://globaltimew.cn/202207/1269839.shtml>. (검색일: 2023.2.1).
- “Conflict with Ukraine: November 2022.” 12, Dec. 2022, <https://www.levada.ru/en/2022/12/12/conflict-with-ukraine-november-2022/>. (검색일: 2023.1.2).
-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Germany. “Cooper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.” <https://www.bmbf.de/en/cooperation-with-the-russian-federation-2266.html>. (검색일: 2023.1.11).
- “Five Foreign Policy Stories to Watch in 2023.” <https://www.cfr.org/five-foreign-policy-stories-watch-2023>. (검색일: 2022.12.26).
- “Future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 must include guarantees for Russia – Macron.” <https://www.tass.ru/world/1545261>. (검색일: 2022.12.26).
- G-RISC 홈페이지. <https://www.g-risc.org>. (검색일: 2023.1.12).
-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. “Russia’s attack on Ukraine: Important information for students and researchers.” <https://www.daad.de/en/the-daad/ukraine>. (검색일: 2023.1.12).
- “Germany sets out new details of scientific sanctions against Russia.” <https://www.sciencebusiness.net/news/germany-sets-out-new-details-scientific-sanctions-against-russia>. (검색일: 2023.1.12).
- “India praises ‘strong and steady’ relationship with Russia as foreign ministers meet in Moscow.” <https://www.scamp.com/news/world/article/3198945/india-praises-strong-and-steady-relationship-russia-foreign-ministers-meet-moscow>. (검색일: 2023.2.10).
- “India’s Tata Steel to stop doing business with Russia.” <https://www.argusmedia.com/en/news2323810-indias-tata-steel-to-stop-doing-business-with-russia>. (검색일: 2023.1.17).
- “Infosys still operation from Russia eight months after saying it was pulling out.” <https://www.therguardian.com/world/2022/nov/04/infosys-still-operating-russia-rishi-sunak-akshata-murty>. (검색일: 2023.1.17).
- President of Russia. “Meeting with Prime Minister of India Narendra Modi.” <https://www.en.kremlin.ru/events/president/news/69362>. (검색일: 2023.2.9).
- “Russia Plays Tug-of-War as its Talented IT Workers Head for the Door.” <https://www.themoscowtimes.com/2022/04/01/russia-plays-tug-of-war-as-its-talented-it-workers-head-for-the-door>. (검색일: 2023.1.30).
- “Russia’s largest lender Sberbank may issue bonds in Chinese yuan.” <https://www.zawya.com/en/world/russia/russias-largest-lender-sberbank-may-issue-bonds-in-chinese-yuan>. (검색일: 2023.2.14).
- “Russia’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: EU adopts 9th package of economic and individual sanctions” <https://consilium.europa.eu/en/press-releases/2022/12/16/russia-s-war-of-aggression-against-ukraine-eu-adopts-9th-package-of-economic-and-individual-sanctions>. (검색일: 2022.12.19).
- “Russia Tests India Freight Direct Via INSTC.” <https://www.russia-briefing.com/news/russia-tests-india-freight-direct-via-instc.html>. (검색일: 2023.1.20).
- “South Africa to hold naval drill with Russia, China.” <https://www.aa.com.tr/en/africa/south-africa-to-hold-naval-drill-with-russia-china/2792935> (검색일: 2023.2.13).
- “UAE-Russia Non-Energy Bilateral Trade Up 57%.” <https://www.middleeastbriefing.com/news/uae-russia-non-energy-trade-up-57/> (검색일: 2023.2.27).
- “What was discussed at the Russia-Iran-Turkey summit?” <https://www.euronews.com/2022/07/19/vladimir-putin-visits-tehran-for-talks-with-leaders-of-iran-and-turkey>. (검색일: 2023.2.10).
- Yale School of Management, 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. “Over 1,000 Companies

- Have Curtailed Operations in Russia-But Some Remain.” <https://www.som.yale.edu/story/2022/over-1000-companies-have-curtailed-operations-russia-some-remain>. (검색일: 2023.1.10).
- “6th Caspian Summit,” President of Russia. <https://www.en.kremlin.ru/events/president/news/68779>. (검색일: 2023.1.19).
- “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утвердили дорожные карты по импорто замещению ПО.” https://www.digital.gov.ru/ru/events/42299/?utm_referrer=https%3a%2f%2fyandex.com%2f&utm_reffer=https%3a%2f%2fdigital.gov.ru. (검색일: 2023.1.27).
- “Бедность против Телевизора.” <https://www.cronicles.report>. (검색일: 2022.1.2).
- “Володин рассказал что 76%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сохранили бизнес в России.” <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5758947>. (검색일: 2023.1.11.).
-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. “Российско-германская «Дорожная карт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, науки,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инноваций» становится бре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-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.” 12 июля 2019, https://minobrnauki.gov.ru/press-center/news/?ELEMENT_ID=21950. (검색일: 2023.1.12.).
- МинФин России, “О новой нормативной структуре средств Фонд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и золоте.” https://www.minfin.gov.ru/ru/press-center?id_4=38327. (검색일: 2023.2.9).
- “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вычисли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и 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и.” https://www.tadviser.ru/index.php/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_вычислительной_техники_и_микроэлектроники. (검색일: 2023.2.1).
- “индустриальный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.” https://www.tadviser.ru/index.php/Статья:Индустриальный_центр_компетенций_%28ИЦК%29. (검색일: 2023.1.27).
- “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средства на созд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О.” <https://ria.ru/20220711/tekhnologii-1801608410.html>. (검색일: 2023.1.25).
-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. “Россия и Китай открыли Годы научно-технического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.” 26 августа 2020, <http://government.ru/news/40273/>. (검색일: 2023.1.13).
-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. “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,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.” 5 июня 2019, <http://www.kremlin.ru/supplement/5413>. (검색일: 2023.1.13).
- “Путин: ЕАЭС имеет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, чтобы стать одним из мощных полюсов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.” <https://www.tass.ru/politika/16858715>. (검색일: 2023. 2.10).
- “Роснефть разместила облигации на 15 млрд юаней.” <https://www.finmarket.ru/bonds/news/5804645>. (검색일: 2023.2.14).
- “России понадобится 15 лет на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.” <https://www.news.rambler.ru/scitech/4860456-rossii-ponadobitsya-let-na-importozameschenie-poluprovodnikov/>. (검색일: 2023.1.31).
- “Россия опередила Китай и стала главным партнёром по торговле для Узбекистана.” <https://www.gazeta.uz/ru/2022/12/21/trade>. (검색일: 2023.1.4).
- “Эксперты назвали три сценари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и под санкциями.” <https://www.rbc.ru/economics/11/08/2022/62f384ed9a79473c8719c8fc>. (검색일: 2023.2.16).

202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

□ GMR (Global Market Report)

번 호	제 목	번호부여일
23-001	복합 위기의 시대가 불러온 변화, 유럽 주요국 소비 트렌드 동향	2023.1
23-002	EU 수소 산업 정책 및 프로젝트 동향	2023.1
23-003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1
23-004	2022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	2023.1

□ KOTRA자료

번 호	제 목	번호부여일
23-001	2023 외국인 투자상담 FAQ	2023.1
23-002	2023 FAQ on FDI in Korea	2023.1
23-003	외국인투자 가이드 2023	2023.1
23-004	Business in Korea 2023	2023.1
23-005	外國人投資ガイド 2023	2023.1
23-006	外商投資指南 2023	2023.1
23-007	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동향 (2022년 4분기)	2023.1
23-008	2022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실태조사	2023.1
23-009	출입국 외국인 정책 동향(2022년 하반기)	2023.1
23-010	2023 외국투자자를 위한 노사가이드	2023.1
23-011	2023 외국투자자를 위한 비자가이드	2023.1
23-012	2023 외국투자자를 위한 입지가이드	2023.1
23-013	2023 외국투자자를 위한 조세가이드	2023.1
23-014	2023 외국투자자를 위한 통관가이드	2023.1
23-015	2023 외국투자자를 위한 환경가이드	2023.1
23-016	Labor Laws in Korea 2023	2023.1
23-017	Visa Guide for Investing in Korea 2023	2023.1
23-018	Industrial Sites in Korea 2023	2023.1
23-019	Taxation in Korea 2023	2023.1
23-020	Customs Clearance in Korea 2023	2023.1
23-021	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2023	2023.1

23-022	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진출관련 지식재산권 가이드	2023.1
23-023	Customs Policy Trends for Foreign Investors	2023.1
23-024	Environmental Policy in 4Q 2022	2023.2

작 성 자

■ 구미CIS팀 박지원

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현황 및 대안정책 분석

Global Market Report
23-006

발행일	2023년 3월 7일
발행인	유정열
발행처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주소	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전화	1600-7119
홈페이지	www.kotra.or.kr
문의처	구미CIS팀(02-3460-7653)

• ISBN: 979-11-402-0631-5 (95320)



